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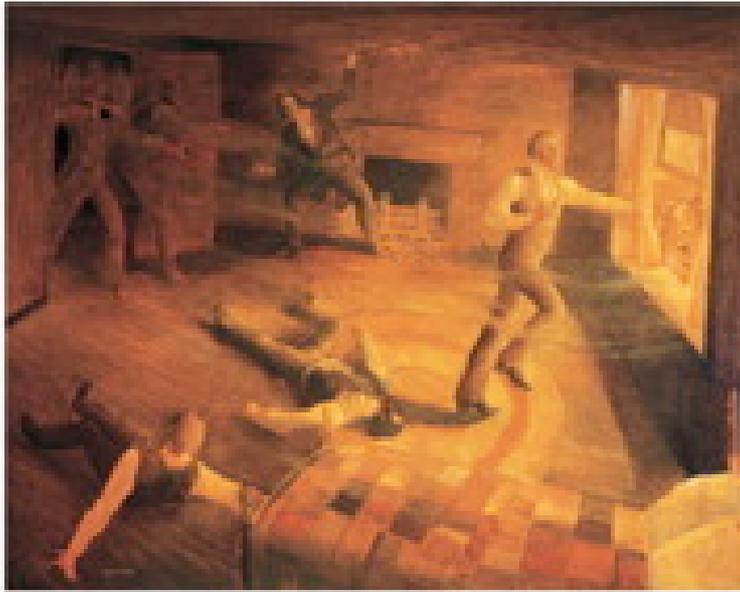
사도로서의 선지자,
28쪽

종교 교육원으로 오십시오, 18쪽

믿는 자가 되라: 2009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36쪽

벤이 일요일에 물건을 살까요?
친14쪽





데니스 비 노인슈완더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소년 조셉은 지해를 구하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해를 받았습니다. 그를 위한 사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첫번째 시험을 통해 그가 받은 사도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가르침들 중에는 사도의 간증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의 실재성, 그리고 그분들의 권능에 관한 기초적인 첫 교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28쪽 “조셉 스미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참조.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경고의 음성을 높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신앙 안에서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 10 **특집 기사**
교리와 성약에 관한 연구를 향상시킵
본부 주일 학교 회장단
교리와 성약을 공부할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 18 **종교 교육원을 통해 영혼을 풍요롭게 함**
종교 교육원이 어떻게 그들의 간증을 강화하고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청년 성인들이 이야기를 나눈다.
- 26 **강을 건너기 위한 신앙**
아담 시 올슨
라파엘은 가슴팍까지 차오른 강물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띤
자들이 그분의 도움을 약속 받는다는 것을 배웠다.
- 28 **조셉 스미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데니스 비 노인슈완더 장로
조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와 부활 및 속죄의 권능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 받았다.
- 14 **특집란**
교리와 성약의 메시지: 하나님 면전에서 확신
마이클 존 유 테 장로
하나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44 **후기 성도의 소리**
어머니의 권고, 가족 축복, 속죄에서 오는 평안
- 48 **이번 호를 활용하기**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이번 호의 주제들,
성공적인 가정의 밤

표지
앞: 나는 빛을 보았다, 존 맥노튼.
뒤: 조셉과 하이럼의 순교, 게리 스미스

청소년

- 8 **특집 기사**
하나님을 발견함
메리 위니그
나는 일하기 위해,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알래스카로 갔다.
- 22 **가장 유용한 지식**
클레이트 엠 크리스텐슨 장로
나는 필사적으로 물문경이 참된지 알아야만 했다.
- 36 **믿는 자의 본**
청남 청년 본부 회장단
여러분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40 **아이티의 희망**
리차드 엠 롬니
아이티의 십대들은 선교사의 영을 좇고 있다.
- 17 **특집란**
포스터: 쏟아지게 하라!
- 35 **짧은 메시지**
훌륭한 선물; 좋아하는 찬송가
- 39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디모데전서 4:12**
올해의 상호 향상 모임 주제 들여다보기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말아서 37:6), 데이비드 코치

젊은 루시 맥 스미스는 뉴욕 팔마이라에 위치한 성스러운 숲 근처의 통나무 집에서 그녀의 아들 조셉과 하이럼에게 경전을 읽어 주었다. 이 작고 겸손한 시작으로부터 조셉은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로서 복음의 충만함을 지상에 회복시켰다.

그리고 1844년 6월 27일, 이 두 소년은-장성한 성인으로서-회복의 참됨을 증거하며 순교하였다.

2009년 1월호, 제46권, 제1호
리아호나 04281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인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캔들
고문: 케리 제이 코올먼, 케네시 존슨, 요시히고 가꾸찌, 더블류 더글라스 셴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레스넬히트
편집 책임자: 비타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반즈,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매켈,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커크, 주디스 엠 팔러, 조슈아 제이 파커, 채드 이 패라스, 켄 윈 피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돈 엘 설, 잭슨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일
선임 비서: 로벨 튜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엠 겸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캠펬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아로오, 콜레트 네베거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타마커,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킵트 엠 무이, 지니 제이 날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저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14호, 제46권, 제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9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운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박 환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정문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 원고판 혹은 기사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디어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관련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anuary 2009 Vol. 33 No. 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어린이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됨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특집 기사

친8 재능 발표회
앨리슨 필머

친14 벤의 일주일
라나 크롬바이드

특집란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제게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첼렐 에스플린

친6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물문경의 출판

친10 친구 사귀기: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리처드 엠 롬니

친13 색칠하기



친구들 표지
삽화: 스티브 크롭



이번 호에 숨겨진
불가리아어 정의반
반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의를
택하듯이, 올바른
페이지를 선택해
보세요!

애독자 편지

새로운 지부를 편안하게 느끼게 됐어요

저는 최근에 인도 벵갈루루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이 도시는 저의 고향인 첸나이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저는 새 직장이 마음에 들었지만 새로운 지부에 나가는 것은 낯설었습니다. 제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고, 고향 지부가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호 리아호나에서 "어느 와드에서든 편안하게"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안을 받았고, 여러 회원들에게 제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얼굴들을 찾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 기사를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셉 아이작, 인도

리아호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항상 리아호나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덕분에, 저는 선교사들에게 구도자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차례를 기다릴 때, 저는 리아호나를 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 하면, 저는 이것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구원의 계획에 대해 말할 기회로 삼습니다. 가는 곳마다 리아호나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제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가리타 헤레라 데 벨로, 멕시코



경고의 음성을 높입시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주님은 친절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그분의 종을 부르십니다. 가장 가치있는 경고는 사람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에 관한 경고라는 점을 생각할 때, 경고하는 부름은 더욱 어렵고 더욱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죄의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니느웨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처음에는 이를 회피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는 여러 세대 동안 사악한 백성들이 선지자를 거절했고 때로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에게 안전과 성공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겪은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이 아직 볼 수 없는 위험을 감지하고 불안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자녀를 설득할 방법을 알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부모의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부모의 경고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축복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 어느 토요일 오후에, 제가 완전히 함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어머니께 허락을 구했을 때,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셨던 어머니가 제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제 마음을 돌리게 했던 어머니의 힘과 능력에 대해 지금도 놀라움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그 힘은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난 네가 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택은 너의 몫이란다.” 어머니께서 할 수도 있다는 단어와 선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제게 주는 유일한 경고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했습니다.

몇 마디 말로 경고할 수 있는 어머니의 힘은 그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첫째, 저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저는 어머니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신 적이 있으며 옳은 선택을 함으로써 축복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 어머니는 제가 내리는 선택이 아주 중요하므로 주님께 간구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간증을 제게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 모범, 간증. 이 세 가지는 그날 제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열쇠가 되어 주었으며, 또한 제가 주님의 종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축복을 받을 때마다 열쇠가 되었습니다.

경고의 음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의 제자들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각 회원에게 주어진 책임이 여기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어 증언하게 하며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였노니, 경고를 받은 각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경고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은 선교사들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 보라고
권유할 때, 여러분은
선교사들이 진리를 가르칠
것이고 행복으로 이끄는
길을 보여 줄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하니라.”(교리와 성약 88:81)

경고할 의무

침례 성약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에게는 이웃에게 경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회원 친구와 친척들에게 복음에 관해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들이 가르치도록 부름 받고 성별된 전임 선교사들에게서 배우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배워 보라는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일 때, 위대한 약속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며, 침례의 물가로 들어가서 충실히 남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전임 선교사나 와드 및 지부 선교사들은 교회 회원인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함께 만들어보라고 제의하거나 부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여러분에게 친척과 이웃과 지인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제안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날짜를 정하고 그때까지 그 사람 또는 가족이 선교사들에게서 배울 준비를 하도록 노력해 보라고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제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선교사들로부터 그 권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80대의 미망인이셨던 한 자매님이 자매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배우게 되었고, 제가 그분에게 침례를 베푸는 축복을 받았습시다.

침례가 끝나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 자매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을 때, 저는 침례를 받겠다는 그 자매님의 선택으로 인해 그 가족의 앞 세대들과 뒤 세대들이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저는 그분의 아들이 어머니에게 인봉되기 위해 성전 의식을 받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 배우도록 권유한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그러한 순간들이 매우 달콤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은 선교사들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6)

선교사들이 우리를 돕고 격려하겠지만, 침례탕과 성전에서 우리가 그러한 순간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게 되느냐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책임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험이 없다면 주님은 경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회가 흔들리고 그들이 한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평화가 자신들의 삶과 가족 안에 결여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늘어가는 증거를 무시하라고 배웠습니다. 스스로 이런 위험의 징후들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쉽사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잘 살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 말해야 하지?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나 그 사람들에게 무슨 위험이 있지?”

위험을 느끼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실재합니다. 예를 들면, 다가올 세상에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 받은 자들의 손에 의해 침례의 문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어지는 신성한 성약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알려 주었던 그것을 여러분이 그들에게도 알려 주었는지 혹은 알려 주지 않았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적절한 때가 아니야.”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년 전에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한 남자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저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제게 친절했고 저를 많이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잘 아는 후기



성도는 저뿐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왜 그와 복음에 관해 이야기할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그가 은퇴하고 제가 멀리 떨어져 살게 된 후, 그와 그의 아내가 늦은 밤에 캘리포니아 카멜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느꼈던 슬픔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계속 사랑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게 될 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제 눈을 들여다 볼 것이며, 저는 그의 눈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헨리, 자네는 알고 있었네, 그런데 왜 내게 말해 주지 않았나?”

제가 그에 대해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침례 준 그 미망인과, 이제 그녀에게 인봉되고 또 서로에게 인봉될 그녀의 가족들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가르침 받으라고 권유하는 제 능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신앙으로,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사랑이 먼저입니다. 단 한 번의 친절함 행위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느껴야 하고, 우리가 권유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린도전서 13:4, 7)

저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보아 왔습니다. 한 가족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왔습니다. 그 집은 신축 건물이었으며, 저는 그 집에서 조경 일을 하며 여러 날 밤을 보낸 후기 성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마치고 그 가족의 남편 옆에 서 있었던 마지막 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가 한 작업을 전체적으로 둘러 본 후 옆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당이 당신네 물몬들이 우리를 위해 가꾸어 준 세 번째 마당인데, 이번 것이 가장 훌륭한 것 같군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제게 조용히, 그렇지만 확고하게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아주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 년 동안 종종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는 그의 교회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이웃들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줄곧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귀가하던 저는 그들의 집 앞에 트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른 주로 이사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와줄 일이 있는지 보려고 그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트럭에 가재도구를 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는 제가 다가가자 조용히 “안녕하세요, 아이어링 형제님”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 살았던 그 집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장성했고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보여준 사랑 때문에, 그는 침례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는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도록 권유하는 것에 대해 더 훌륭한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다음과 같은 구주의 명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6)

우리 대부분은 겸손하여 우리의 작은 모범의 촛불이 주의를 끌기에는 너무 희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남들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다른 교회의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30여 명 모인 모임들에 참석하여 말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혼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교회의 기원과 어린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그리고 살아계신 선지자들에 대한 저의 메시지를 그토록 경청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들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교회 회원이나 회원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가족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예요.” 종종 그들은 교회 회원들이 지역사회 활동이나 재난 구호 활동을 훌륭하게 해 준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직 교리의 진실성을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회원들의 삶에서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영원히 인봉될 수 있으며 복음이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는 회복의 진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모범 때문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될 세 번째 일은 간증으로 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모범은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입을 열어 간증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와 선택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단순한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영적 진리에 대한 간증을 지닐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해야 할 선택들이 있습니다. 영적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진리에 순응시킬지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진리에 대한 간증을 전할 때, 그들이 스스로 그 진리를 알게 되면 해야 할 선택들이 있다는 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몰몬경을 읽도록 권유하는 것과 선교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데 동의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 위해 그것을 읽어야 하며 모로나이서에 나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즉 그것이 참된지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로나이서 10:3~5 참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친구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면 동일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경험에서 우리나라 오는 간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또 다른 선택에 직면할 것입니다. 곧, 선교사들에게 가르침 받으라는 여러분의 권유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간증과 함께 그러한 권유를 하려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 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종이로 만든 열쇠 세 개를 준비하고 각각에 “사랑”, “모범”, “간증”이라고 쓴다. 아이어링 회장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열쇠를 보여주고, 가족에게 이 세 개의 열쇠가 그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질문한다. 기사에 나오는 예를 사용하여, 이웃에게 경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우리가 이웃에게 경고할 때 세 가지 열쇠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해 달라고 가족에게 요청한다.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아이어링 회장의 간증을 읽고 마친다.

2. 방문하는 가족에게 사탕이나 과자를 가져가는 것을 고려해 본다. 그것들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두되, 나누어 주지는 않는다. 아이어링 회장이 캘리포니아에서 일했던 회사의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이어링 회장의 마음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방문한 가족에게 만약 여러분이 그들과 사탕을 나누지 않고 돌아간다면 그들이 어떤 느낌일지 묻는다.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그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기회를 반길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동안 그들과 함께 자리한다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들이 그들의 나이와 교육 수준을 뛰어넘는 권능으로 영감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 보라고 권유할 때, 여러분은 선교사들이 진리를 가르칠 것이고 행복으로 이끄는 길을 보여 줄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신

아마도 우리 중 일부는 이웃에게 무엇인가 권유를 하기에는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우리의 생활이 그만큼 선하지 못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우리의 간증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의 첫 부분에 신도록 지시하시며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신 다음 격려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경교의 음성이 이 마지막 날에 내가 택한 나의 제자들의 입으로 모든 백성에게 미치리라.”(교리와 성약 1:4)

그리고, 그 제자들인 우리의 자질에 대한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연약한 것들이 나와 힘 있고 강한 것들을 부수리니”(교리와 성약 1:19)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에 의하여 세상 끝까지 ...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23)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겸손한 만큼, 강하게 되게 하며, 높은 곳에서 오는 복을 받게 하며”(교리와 성약 1:28)

그 확신은 교회의 첫 선교사들과 오늘날의 선교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충분히 변화시켜, 선택하라는 우리의 권유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유처럼 들리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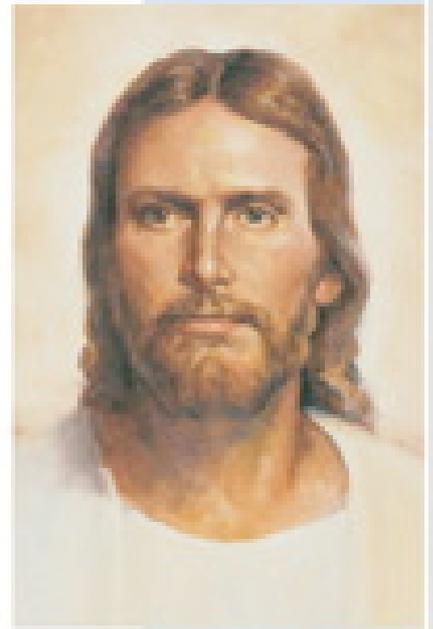
주님의 모범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완벽한 모범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거듭해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종의 가르침을 들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의 방문이나 감독의 전화에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은 도움을 받고 가르침 받으라는 그분의 권유였습니다.

또한 주님은 항상 결과를 명확히 밝히셨고 그런 다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종 리하이가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친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항상 적용됩니다. “이에 이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크신 중보자를 바라보고 그의 큰 계명들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충실하여, 그의 성령의 뜻을 좇아 영생을 택하고”(니파이후서 2:28)

또한 우리는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기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인 영생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기로 선택하는 것임을 간증해야 하며, 야콥은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하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고, 너희는 자유로워 너희 스스로 행할 수 있음을 영원한 죽음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니파이후서 10:23)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다가올 세상에서는 영생의 소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끄는 진리와 선택을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줄 특권과 의무를 받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이 사업은 그분의 사업입니다. ■



우 리는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충분히 변화시켜, 선택하라는 우리의 권유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유처럼 들리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함

메리 위니그

18세 무렵, 나는 여름 동안 일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의 솔다나라는 작은 도시로 갔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 생활해 본 경험이었다. 부모님은 내가 그분들의 좋은 친구이자 그 지역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라이트 가족과 함께 일하며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다. 나는 대학에 들어갈 충분한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답을 얻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밤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간구해 보기로 결심했다. 어째서인지,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여겼다. 만약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라이트 가족의 집에서, 나는 그들의 딸인 리사와 한 방을 썼다. 그녀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여름 동안 집에서 지내며 나와 함께 식료품 가게에서 일했다. 나는 처음부터 리사를 존경했다. 그녀는 아름답고, 지적이며, 자신감이 있었고,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 여름에 우리는 거의 매일 매 시간을 함께 보냈다.

나는 리사가 대학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좋아했다. 그녀의 삶은 매우 유쾌하고 독립적인 듯이 보였다. 리사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잘 정해서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었다.

리사가 매일 경전을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에 대한 나의 존경심도 커져 갔다. 나는 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얻을 수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나의 부족한 신앙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리사가 기도로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 하던 것을 기억한다.

매일 밤,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분이 계시는지 묻는 짧은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그때까지 특별하거나 영적인

느낌은 없었고 어떤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기도 후에도 기도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느낌이었다. 이런 저녁 일과가 두 달이나 계속되었다. 실망스럽게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심은 늘어만 갔다.

어느 날 밤, 나는 심한 향수병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가족, 친구, 익숙한 풍경이 그리웠다. 나를 알고 사랑하는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은 쓰라린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지금 당장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요."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후 몇 분 동안,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풀어 놓았다.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말했다. 나는 그분이 거기 계시다고 믿는 듯이 그분과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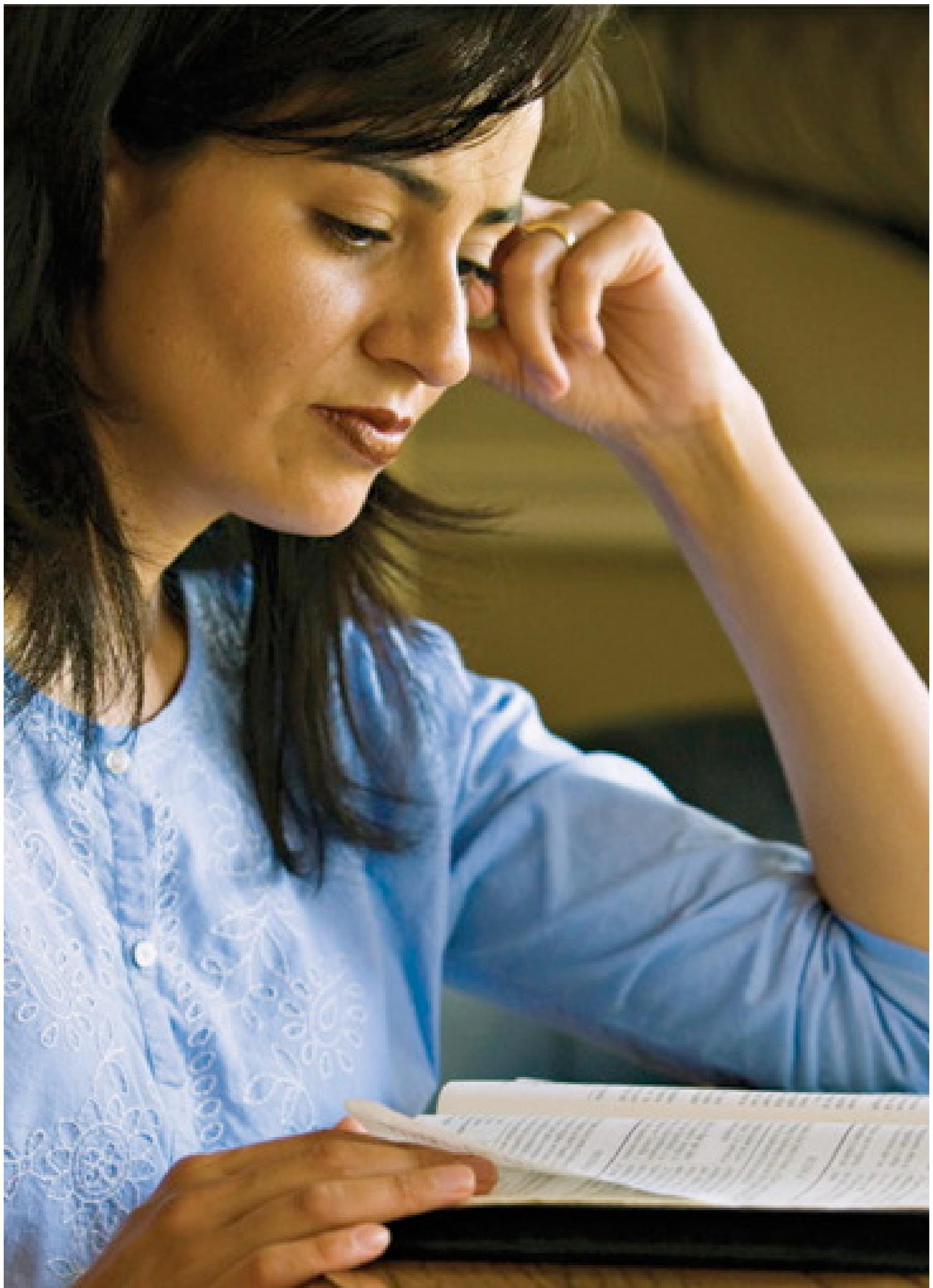
따뜻한 느낌이 나를 감쌌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오셔서 나를 팔로 감싸안으신 듯이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과 평안이 나를 둘러쌌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데 두 달이 넘게 걸렸는지 궁금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이 그 답이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진심을 하나님과 나는 후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게 되었다. 눈물 어린 기도로 하늘에 닿는 길을 찾았다.

그날 밤의 일로 나의 삶은 변화되었다. 나는 선교사로 봉사했고 성전에서 결혼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나의 신앙은 계속해서 커져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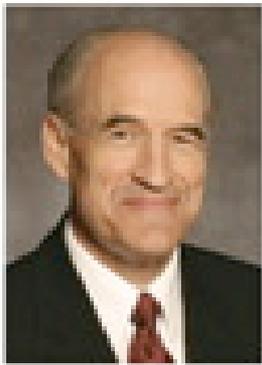
나는 종종 알래스카에서의 여름을 회상하곤 한다. 리사의 모범이 없었다면, 여러 달에 걸친 기도를 계속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마 포기한 채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나는 리사와 그녀의 모범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그녀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 주었다. ■



교리와 성약에 관한 연구를 향상시킴



다니엘 케이 저드, 제1보좌



에이 로저 메릴, 회장



윌리엄 디 오스월드, 제2보좌

올해 우리 모두는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를 위해 쓰여진 놀라운 계시의 책인 교리와 성약을 연구함으로써 커다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본부 주일 학교 회장단

중 종 회복에 관한 주님의 안내서라 일컬어지는 교리와 성약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나 확고한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¹

이미 많은 회원들이 이 책을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담긴 개인에게 주어지는 특정한 계시들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 계시들을 제

자신에게 적용시킵니다.”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리와 성약은 그다지 오래된 것이 아니어서 제가 마주치는 상황들을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리와 성약을 좋아합니다. 그 책은 제가 신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이 진실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며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올해에 여러분의 경전 연구가 가지 있는 경험이 되도록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주일 학교에 도움이 될 몇 가지 방법들도 추천하고자 합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십시오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반원 학습 지도서는 회원들이 2009년 동안 매주 일요일 공과를 위해 주제별로 정리된 독서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교리와 성약을 처음부터 끝까지”² 읽도록 도와줍니다.

이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은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공부한 부분의 전후 관계도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 학교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준비시켜 주어, 점차 우리의 개인 및 가족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과 영감이 더해질 것입니다.

매일의 경전 공부에서, 여러분이 매주 하루나 이틀을 정해 공과 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토론할지 미리 살펴본 후, 교리와 성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질문하며 읽으십시오

과테말라의 렌조 몰리 바리오스 마티아즈 형제는 자신의 삶에서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경전 공부의



복음을 힘있게 가르치는 것과 영감으로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교회 공과에서 진정한 교사는 성신이라는 것과 공과 반에서의 참여는 복음을 증거해줄 영을 초대하는 것임을 이해할 때 일어납니다.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1년, 허리케인 미치가 중앙 아메리카를 휩쓸고 지나가며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 후, 저에게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응답을 구하며, 저는 제가 몹시 존경하는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전을 읽어 봐. 의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을 그 안에서 찾게 될 거야.’

“이것은 제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라고 마티아즈 형제는 말합니다. “꽤 오랫동안 경전을 공부한 후, 저는 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결심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얼마 후 마티아즈 장로는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선교부에서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이 경전 공부의 힘을 알도록 도왔습니다.

마음속에 구체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경전을 읽을 때, 주님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 공부에 포함시킬 질문들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은 그 통찰력을 주일 학교에서 나누고 싶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반원들은 주님이 개인적인 인도와 영감을 주기 위해 어떻게 경전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적절히 증거하는 말을 서로에게서 들을 때 교화됩니다.

관계, 유형 및 주제를 찾아보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우리의 모든 경전 공부에서 관계, 유형 및 주제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³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의 순종과 약속된 축복 사이의 관계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0) 우리가 이 관계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행하기로 결심할 때 경전 공부는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교리와 성약의 한 가지 유형은 책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소개에서 명시하듯이 “이들 거룩한 계시는 필요한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이며, 실제 인물이 관련된 실생활의 상황에서 나온 것”⁴입니다. 그 계시는 개인적인 것들이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값이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일들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들에 답을 줍니다.⁵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고 받는 이 유형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전의 가장 일반적인 주제 중 하나는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교리와 성약 88:63)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서 스스로 배우는 책임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교리와 성약은 이야기처럼 읽힌다기 보다는 늘 관계, 유형 및 주제로 함께

여어져 있습니다. 주일 학교에서 경전을 함께 토론하며 얻는 축복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의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들으면서 이러한 통찰력들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화되고 함께 기뻐하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교회 회원들이 영에 의해 서로 가르치고 배울 때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0:2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힘있게 가르치는 것과 영감으로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교회 공과에서 진정한 교사는 성신이라는 것과 공과 반에서의 참여는 복음을 증거해 줄 영을 초대하는 것임을 이해할 때 일어납니다.

2007년 2월, 가르침과 배움에 관한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배우는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영감 받은 교사가 공과 토론에서 반원들이 수동적이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원이 스스로 배움의 책임을 맡도록 돕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르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반원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⁶

반원들이 주중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한 후 함께 경전을 읽고 통찰력을 나눌 때 성신은 각 반원들의 “마음에”(니파이후서 33:1) 그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을 증거하고 전해 주실 것입니다. (니파이후서 32:3~참조)

개인적인 초대

올해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강화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은 더 커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해의 눈을 여실 것이며, 경전은 우리 삶에서 더욱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⁷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함께 기뻐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리와 성약 안에 있는]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그것들이 참되고 신실하며, 그 안에 있는 예언들과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37) ■

주

1. 교리와 성약 소개.
2.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반원 학습 지도서* (199년), 소개, 3쪽.
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A Reservoir of Loving Water”(청년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년의 모임, 2007년 2월 4일), www.lds.org 참조.
4. 교리와 성약 소개.
5. 특정 개인에게 주어진 계시에 대한 다른 예들, 교리와 성약 7~9편, 11~12편, 14~17편 참조.
6. 제프리 알 홀런드,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73쪽; *Ensign* 2007년 6월호, 105쪽. 방송은 www.lds.org에서 몇몇 언어로 청취 가능함. “Gospel Library”로 가서 “Additional Addresses”를 클릭한 후, “Worldwide Leadership Training: Teaching and Learning”을 클릭한다.
7. 조셉 스미스-역사 1:73~74 참조. 침례 받은 후,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더리는 “성신으로 충만하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깨우침을 받아, 경전을 분명히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반원 학습 지도서



학습 지도서를 공부함

주 일 학교에 가기 전에 *반원 학습 지도서*를 사용하여 공부한다면, 우리가 “양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도록”(교리와 성약 88:77) 더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습 지도서에는 다양한 학습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 교리와 성약에 대한 소개
- 주별 경전 읽기 과제 및 성구 학습 고리
- 간단한 교회 역사 연대표
- 교회 역사상 중요한 장소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 복음 토론을 조성하기 위해 신앙을 증진시키는 질문들
-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사본



하나님의 면전에서 의 확신



마이클 존 유 테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의 신앙과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조 셉 스미스가 “종교적 열성자들의
논쟁”(조셉스미스-역사 1:11에
둘러싸여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지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영감 받은 이야기이며,
진정한 진리의 추구자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질문과 진실한 소망을 지닌
열네 살의 미천한 소년 조셉이 경전에서 읽은 다음
구절은 그에게 참으로 큰 위안을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체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이 구절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맺어야
하는 관계에 대한 위대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구절은 질문을 가지고 찾아 온 아들을
향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비와 성품을
표현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성스러운 숲에서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시현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큰 위안과 평안을 주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겠다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저는 이 약속을 시험해 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제가 장난감을
잃어버렸든, 동전을 잃어버렸든, 또는

어른들에게는 하찮게 보일 수 있는 다른 어떤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응답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것이 어린
소년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소년 조셉 스미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다음 구절이 말해주듯 기도는
응답된다는 전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야고보서 1:6)

저는 자라면서 의심하지 않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의심과 편견의 씨앗을
심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마태복음 18:3)는 구주의 말씀은 제게
평생 추구해야 할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겨자씨 한 알 만큼”(마태복음 17:20)의 신앙이
가끔은 제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지만 평소에는
제 영향력 밖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종류의
신앙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권고는 이
의로운 추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이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경험했던 과정입니다. 조셉은 그 이전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끊임없이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그리고 계속해서 선택의지를 의롭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빛을 더욱 받아,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져서 마침내는 대낮이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삶에 있었던 한 사건이 청년이었던 저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조셉은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 조금 있더니 흥분한 폭도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 조셉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어머니는 놀라 비명을 질렀다. …

“…한 무리가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하고 …

의논을 마친 다음 그 중 지도자급 되는 자가 자신들은 조셉을 죽이지는 않겠으나 온 몸을 발가벗겨서 채찍으로 치 … 겠다고 선언했다. … 그들은 악취가 나는 타르 막대기를 그의 얼굴에 갖다 대더니 … 그것을 목구멍 속으로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했다. …

“폭도들이 떠난 후 조셉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통증과 탈진으로 인해 다시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조셉은 있는 힘을 다해 얼굴에 묻은 타르를 떼어 내어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으며 …

“선지자는 자신의 몸을 감쌀 무언가를 얻어 집으로 들어간 후, 밤새도록 몸을 씻고 상처를 치료하였다. …

“다음날 아침인 안식일에 사람들은 평소와 같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구주의 말씀은 제게 평생 추구해야 할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조 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지혜를
구했고 그 후 부지런히
신앙을 행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 그들 가운데는
… 그 폭도들 중의 일부도 끼어 있었는데 …

“온 몸에 멍 자국과 흉터를 지닌 채, 조셉은
모임에 갔고, 전날 밤의 가해자들과 평온하고
담대하게 마주하며 회중 앞에 섰다. 그는 힘있는
설교를 했으며, 같은 날 세 명의 개종자가 침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왔다.”¹

선지자 조셉이 견뎌야만 했을 고통과 고난을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다음날
설교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유사한, 혹은 더 가혹한 다른 많은
경험들도 그가 책임을 저버리도록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소한
어려움이나 불편 때문에 우리의 의무를 등한시
한다면 어찌 우리가 스스로 합당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9)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네 영혼을 적시리라.

“[네 다스림은] …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무궁토록 네게로 흘러오리라.”(교리와 성약

121:45~46)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간증하는
것은 저의 특권입니다. 그가 성스러운 숲에서
지혜를 구했고 그 후 부지런히 신앙을 행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존 테일러
회장님(1808~1888)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을 때 쓴 다음의 찬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우리를 위해 한 일을 감동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보기에 위대하게 살다가 위대하게 죽었으니,
옛적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자기의 사명과 일을 자신의 피로
인봉하였[도다].”(교리와 성약 135:3)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처럼 우리의 처지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행사하여,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점점 강하여지기를”
기원합니다. ■

주

1. 조지 큐 캐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 (1988), 126~129쪽;
또한 *History of the Church* 1:261~264 참조.

종교 교육원을 통해 영혼을 풍요롭게 함

종교 교육원은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고, 친구들을 사귀며,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간증을 강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

간증을 강화함

나는 종교 교육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자주 놀라곤 한다. 수업에 참석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거나 복음 원리를

종교 교육원은 복음을 배우고 다른 후기 성도들과의 우정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장소이다.

더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온 기억은 한 번도 없다. 그 결과 나의 삶은 변화되었다.

종교 교육원에 참석함으로써 받았던 많은 축복들 중에는 가족 관계가 개선되고 경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 나의 간증도 커졌다.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기 전에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은지 어떤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종교 교육원은 내게 훌륭한 경험이 되었다. 그것은 내가 교회의 표준을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었다. 교회의 교리는 구원과 승영의 수단이며, 나는 종교 교육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한다.

알베르토 이빌레즈 로드리게스, 멕시코





나의 목표를 수정함

어느 일요일 성찬 모임에서 나는 종교 교육원에 관해 이야기하는 연사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분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님의 다음 말씀을 전해 주었다. “종교 교육원의 제 인생을 풍요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종교 교육원은 여러분 주위를 보호의 방패막으로 둘러싸 여러분을 세상의 유혹과 시련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줄 것입니다.”¹

얼마 전, 나는 이사야서를 가르치는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 중 내 인생을 가장 많이 변화시켜 준 수업이었다. 그 학기는 나에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나의 모든 목표와 우선순위가 복음의 원리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종교 교육원에 정기적으로 참석했고 종교 교육원 교사와 함께 일대일로 교회 교리에 관하여 수많은 토론을 했다. 시간이 지나 생각이 바뀌면서, 나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의 목표를 수정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에 맞게 그것을 변경했다.

그 일요일 성찬 모임에서 페리 장로님의 인용구를 듣기 전까지, 나는 이 새로운 목표가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지 알지 못했다. 내가 종교 교육원에 참석했을 때 나의 삶 전체가 더 의미 있게 바뀌었다. 나는 훨씬 더 영에 민감해졌고 유혹에 훨씬 덜 굴복하게 되었다. 나의 태도와 시야가 종교 교육원에 참석함으로써 개선되었다.

크리스타 워렌, 미국 애리조나 주

주

1. 엘 톰 페리, “진리를 받음”, *리아호나*, 1998년 1월호, 60~62쪽.



예언적 약속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수업에 참석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이 훌륭한 종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배우는 경전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얻으십시오. 종교 교육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표준을 높임”, *리아호나* 및 *엔사인*, 2007년 11월호, 48쪽.

신앙을 나타냄

종교 교육원에 대한 나의 애정은 세미나리 때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14세에 교회에 들어왔고, 지식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나는 복음에 대해 배우는 것이 즐거웠고 그 과정에서 만난 훌륭한 친구들과 교사들을 사랑했다.

때로는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이 힘들었다. 교회 회원이 아닌 나의 가족들은 내가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후기 성도 회원들의 도움으로 나는 새벽반 세미나리에 참석할 수 있었다. 가족들은 내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진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미나리는 내가 교회에 한층 더 활동적이 되게 만들어 주는, 내가 택한 방법이었다.

내가 십대였을 때 세미나리가 내 삶을 운택하게 해 준 것처럼, 종교 교육원은 나의 청년 시절을 풍요롭게 해 주었다.



종교 교육원은 일반적으로 18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 독신 및 기혼자 학생들을 위한 곳이다.

새로운 친구들을 찾음

선교 사업을 마치고 몇 년 후, 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도시로 이사했다.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다른 청년 독신 성인들과 어울리기를 기대하며 종교 교육원으로 갔다.

그러나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불친절한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다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 듯했다. 나는 가끔씩 외로웠으며 이미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서 거리감을 느꼈다. 반면에, 교회 밖에서는 좋은 친구들을 빨리 사귀었다.

가끔은 종교 교육원에 가지 않는 것이 가는 것보다 쉽게 느껴졌다. 나는 차편이 없어서 매주 그곳에 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타야 했다. 나는 다른 곳에서 비슷한 관심거리를 가진 좋은 친구들을 찾았다. 게다가 나는 이미 종교 교육원을 졸업한 상태였다.

그러나 가지 않을 이 모든 이유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종교 교육원에서 배운 내용과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과거에 내가 얼마나 발전했었던가를 기억했다. 종교 교육원은 나의 간증이 자라도록 도와주었고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내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계속해서 참석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 해 동안, 차차 나는 종교 교육원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사교 모임에 참석하도록 초대 받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새로운 지역에서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는 것이 처음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과 정신 속에 소중히 간직했다. (고리와 성약 6:20; 84:85 참조) 이 가르침들은 내가 선교사로서 주님께 좀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게 도와 주었다.

나는 종교 교육원에 감사한다. 나는 이것이 영감 받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종교 교육원이 나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져다 주는 축복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멜린다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

종교 교육원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한 이래로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내 삶에 주어졌다. 같이 수업을 듣는 종교 교육원 학생들에 대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키우게 되었고,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은 더욱 강해졌다. 또한 경전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종교 교육원 수업들은 나의 선택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내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것은 내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련에 맞서게 도와 준다. 또한 나는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늘 곁에 계시다는 것을 배웠다. 종교 교육원에 참석할 때, 나는 나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다. 수업에서 받은 가르침들을 적용할 때마다, 내 삶의 다른 일들이 좀 더 쉽게 제자리를 찾는 것 같다.

나는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는 것이 나의 젊은 시절을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고지치 오란두, 나이지리아, 아비아 주



어려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없었을 많은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축복들을 받게 되었다.

데이브 제이 그린, 영국, 잉글랜드

집으로

부모님이 헤어지셨을 때, 나는 처음으로 집에서 멀리 나와 살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대학에 들어온 겨우 첫 번째 달이었으며 가족들의 삶이 바뀌었듯 나도 집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우리 가족이 지난 18년간 살았던 집을 나와 이사했을 때,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나는 내게 집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치 집이 없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교회가 “폭풍우를 피[할] ... 피난처”(교리와 성약 115:6) 묘사되는 것을 종종 들어왔다. 내가 내 삶의 이 새로운 폭풍우와 싸우고 있을 때 종교 교육원은 그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나는 종교 교육원에 등록했다. 수업에서 정확히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공과를 들을 때 내게 왔던 평안과 위안의 느낌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고, 내가 찾은 최고의 조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게 되었다.

나는 대학 교육을 위해 수업료를 지불하지만, 가장 귀중한 교훈들을 종교 교육원 수업에서 무상으로 배운다. 나는 이제 집의 정의가 꼭 우리가 성장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교훈들이 가르쳐지는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안다. 내가 배운 것과 내가 느낀 영으로 인해 종교 교육원은 나의 새로운 집이 되었다. 사랑받고 환영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곳이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

수제인 가블, 미국, 유타 주



알베르토



크리스타



말린다



나고지치



데이브



수제인

가까운 곳에서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을 찾는 법

<http://institute.latterdayprophets.org>를 방문하여 전 세계에 있는 500개 이상의 종교 교육원 중 원하는 곳의 정보를 얻는다.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다면?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서 종교 교육원 목록을 구할 수 있다.



가장 유용한



클레이튼 엠 크리스텐슨
지역 철십인
북미 북동지역

여러분 중 옥스포드 대학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곳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살았던 건물은 1410년에 지어졌는데, 밖에서 보기엔 아름답지만 사실 안에서 사는데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옥스포드에 도착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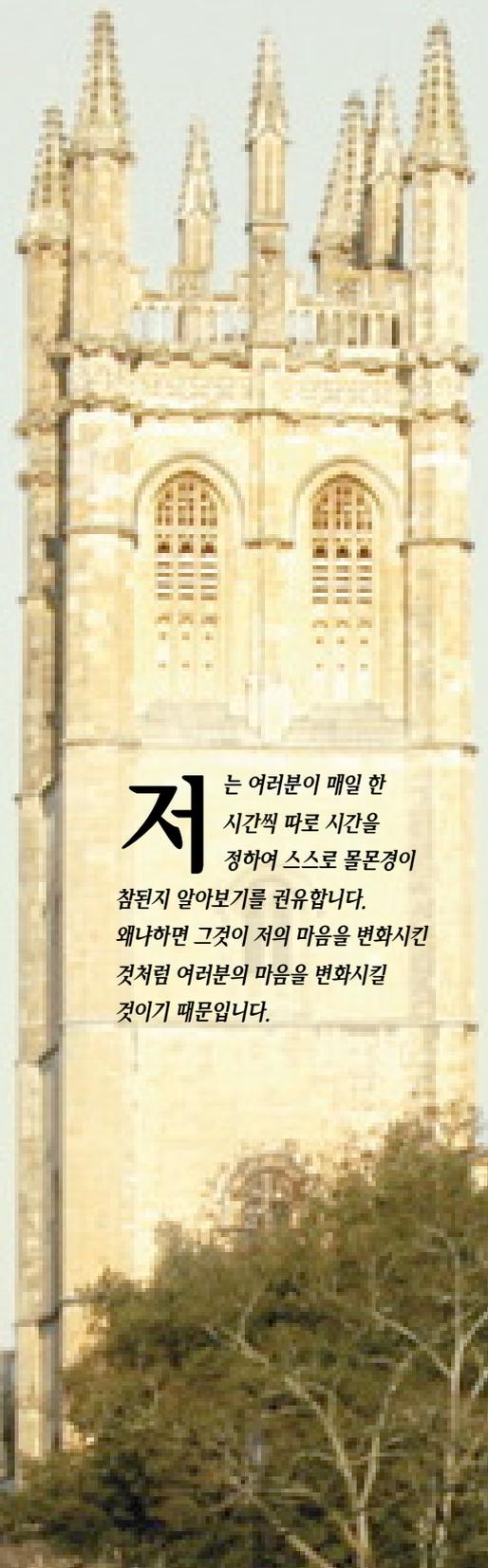
저는 앞으로 교회의 활동 회원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질 것임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장학금을 준 로즈 장학 재단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많은 활동 모임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관여하고 참여하려는 정도에 비해, 저는 제 자신이 몰몬경이 참된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몰몬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것은 보통 부모님이나 브리검 영 대학교 교수로부터 받은 과제로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몰몬경이 참된지 간절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그것이 참된지 알아보기 위해 몰몬경을 열심히 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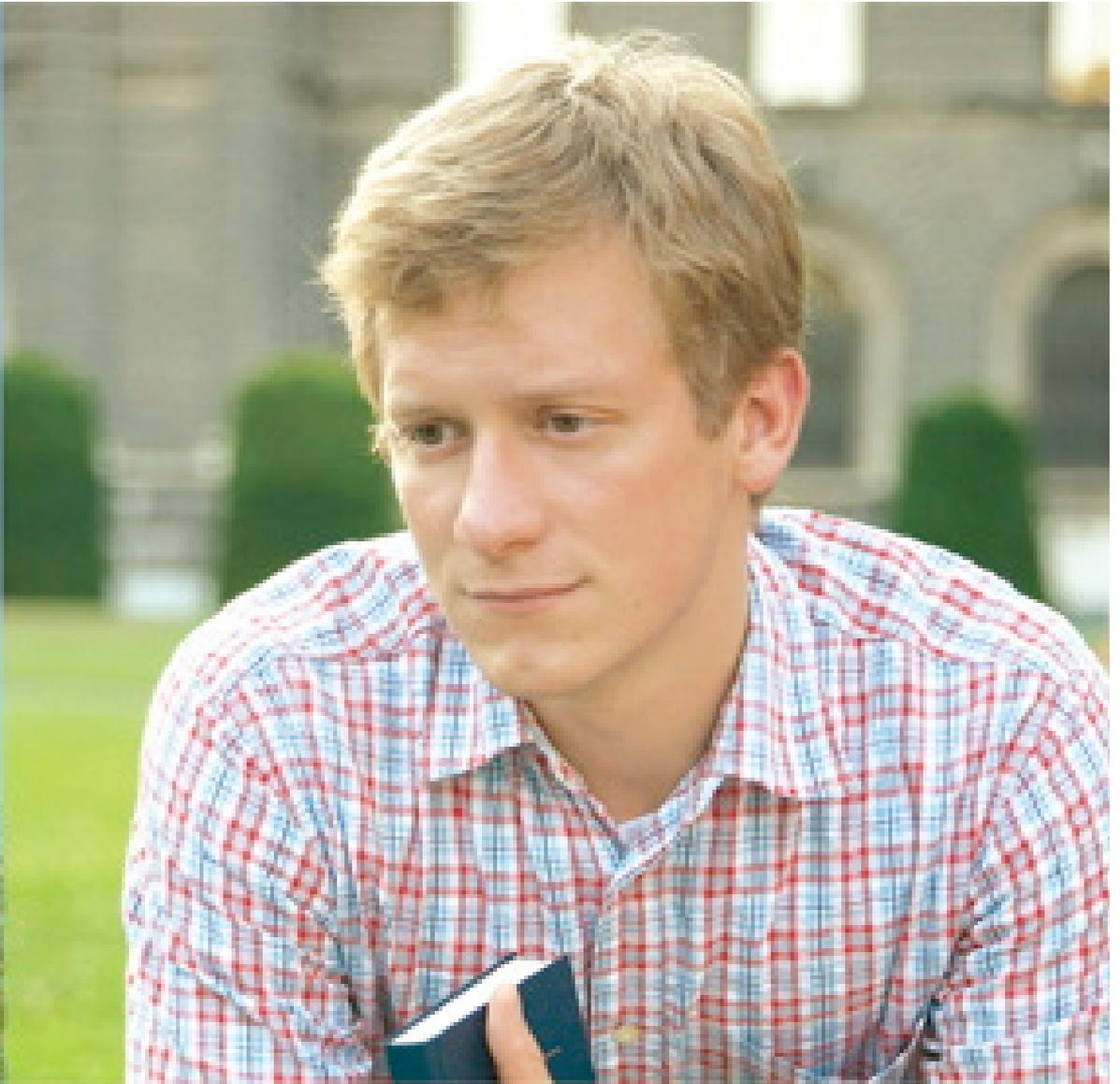
저는 제가 과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응용계량경제학을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3년에 걸쳐 마치는 과정을 2년 안에 마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몰몬경을 읽는 데 매일 한 시간을 써도 괜찮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11시가 되면 벽에 달린 작은 히터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몰몬경이 참된지 알아보기 위해 제가 얼마나 필사적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참된다는 것을 밝혀

저는 여러분이 매일 한 시간씩 따로 시간을 정하여 스스로 몰몬경이 참된지 알아보기를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며 배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들
중 하나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녁 그것은 저와 함께 했습니다. 같은 영이 항상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과 삶을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응용계량경제학을 공부하는 시간 외에 따로, 몰몬경이 참된지 알기 위해 매일 한 시간씩이나 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갈등하던 저의 경험을 되돌아봅니다. 저는 계량경제학에서 배운 지식을 아마 일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은 인생에서 매일, 수없이 사용합니다. 제가 추구했던 모든 교육 중에,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유용한 지식입니다.

아직 다른 사람의 간증에 기대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매일 한 시간씩 따로 시간을 정하여 스스로 몰몬경이 참된지 알아보기를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밝히셨던 장소에 다시 가게 되었을 때, 그곳을 가리키며 “저곳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성스러운 장소야.”라고 그들에게 말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며,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

2004년 6월 8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에서 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 영어 전문은 www.byui.edu/Presentations/transcripts/devotionals/2004_06_08_christians.htm 있다.

신앙 안에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선택한다. 교리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모사이아서 5:15:“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선한 행실이 가득하여,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기 것으로 인 치시어, 너희로 하늘에 인도되게 하시고, ...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갖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는 어떻게 신앙 안에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가?

제3니파이 6:14:“참된 신앙으로 돌이킨 소수의 레이맨인들 가운데를 제외하고는 온 땅의 교회가 무너졌더라. 그들은 참된 신앙에서 떠나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굳건하고, 확고부동하며, 부지런함을 다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기 원하였음이라.”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후기 성도 여성들은 그들의 신앙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된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실천하고 나누는 일에서 뛰어나야 하며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 “1. 주님과 성약을 맺고 지킵니다.
- “2. 주님의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며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 “3. 경전에 나온 주님의 교리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 “4. 성신을 느끼기에 합당해지고 성신을 인식하며 따릅니다.
- “5.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그것을 옹호합니다.
- “6. 진지한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드립니다.
- “7. 가정의 밤을 합니다.
- “8. 자립과 검약하는 생활의 원리를 실천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다른 사소한 것들보다 먼저 행해야 합니다. 이 일들은 단순하고 필수 불가결한 것들로서 ... 그저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은 누군가가 대신 해 줄 수 없는 개인적인 실천 사항이요 습관이며, 옳은 것에 대해 강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남과 구별지어 줍니다.”(“후기 성도 여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리아호나 및 엔사인*, 2007년 11월호, 109~110쪽).

웨털 시 렌트, 본부 초동회 회장:

“우리는 단순히 편한 계명들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확고부동하게 살기 시작할 때 개종됩니다. 지난 날들보다 좀 더 나은 하루 하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이것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과정이 됩니다.”(“의로운 전통”, *리아호나 및 엔사인*, 2008년 5월호, 13쪽)

왜 나는 신앙 안에서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가?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복음의 회복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과 지식은 여러분이 주님과 맺은 성약에 충실하고 진실되도록, 그리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기꺼이 여러분의 장점과 재능을 나누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이 미래에 닥쳐올 도전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의의 원리에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줄 가장 중요한 닻입니다.”(“Steadfast in Christ”, *엔사인*, 1993년 12월호, 52쪽)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의 뜻에 흔들림 없이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성취를 가져다줄지 여러분은 현재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결심은 현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영감과 힘을 가져다줄 것입니다.”(“의로운 결정을 힘”, *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33쪽) ■

강을 건너기 위한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에게서 건지셨음이어”
(시편 18:16~17)

아담 시 울슨
교회 잡지

라 파엘 마테오와 그의 아들(“왈리”로 알려진) 왈링콘은 폭풍이 치는 오후의 어둠 속에서 빗물로 범람하여 거세계 흐르는 물살을 바라보았다. 지부 회장단 제1보좌인 라파엘과 지부 장로정원회 회장인 왈리는 도미니카 공화국, 오코아의 산호세에 있는 예배당에서 일요일 모든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걸으며 교회와 집 사이에 위험한 장애물을 형성한 범람한 오코아 강을 건너느라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건기에는 계곡의 저편에 있는 교회에서 6킬로미터를 걸어 내려와 계곡 다른 편 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집까지 보통 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우기에 강이 범람할 때에는 라파엘과 가족들이 어느 정도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는 장소를 찾아 15킬로미터를 돌아서 가느라 집까지 가는 데 세 시간이 걸린다.

라파엘은 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여행을 했다. 그는 직장에 가기 위해 12년 동안 매일 그 강을 건넜다. 침례 받은지 2개월 만에 지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아 6년 동안 봉사한 것은 단지 그 여행의 횟수를 늘렸을 뿐이었다. 그 후 그는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 받았고, 그 후 지부 회장단으로 다시 부름 받았다.

그러나 강에 친숙하다는 것이 위험을 경감시켜 주지는 않았다. 범람한 강의 빠른 물살은 그것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넓은 강만큼이나 무서운 것이었다. 얼마 전에 범람한 강이 이웃 사람 한 명을 휩쓸어갔고, 좁은 수로 아래로 흐르던 빠른 물살이 그를 집어삼켰다.

아버지와 아들은 물가에서 머뭇거렸다. 그때 라파엘이 발을 담갔다. 강은 넓지는 않았지만 흐르는 물의 양이 불어났기에 매우 깊었다. 차갑고 빠른 물살이 처음에는 무릎을 잡아당기더니, 다음에는 허리, 그리고는 가슴 근처를 소용돌이 쳤다.

라파엘은 자신이 곤경에 처해 있음을 알았다. 강바닥은 미끄러웠고 경사졌으며 강한 급류로 인해 서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반쯤 건넌을 때 그는 똑바로 서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더 이상 물살에 맞서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뒤에서 반대편 독을 향해 자신을 떠미는 어떤 힘을 느꼈다. 반대편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는 그를 구해 준 사람이 왈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왈리는 아직 반대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구조되고 살아남은 것이 구주의 권능, 즉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육체적인 또는 영적인 위기에서 그를 건져 낸, 바로 그 구주의 동일한 권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주님께 봉사하면서 저는 여러 번 가슴팍까지 차오르는 강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 큰 빛이 있다고 느낍니다. 주님은 제게 그분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뿐 아니라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인내심도 주셨습니다.”라고 마테오 형제는 말한다.

다윗 왕처럼 마테오 형제는 구주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으며] 많은 물에서 [그를 건져내셨고] [그를 강한 원수 ...에게서 건지셨음”(시편 18:16~17) 알고 있다.

그 간증은 폭풍우치던 그날 저녁 왈리와 함께 강을 건너는 것보다는 미묘한,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실제적인 시련들을 그가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비싼 여행 경비에도 불구하고, 마테오 형제와 아내 알타그라시아, 그리고 세 자녀들은 2001년 성전에서 인봉 받았다. 그 후로 그들은 성전을 매 년 적어도 두 번 방문하기에 충분한 돈을 모으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

일과 희생은, 육체적이거나 영적인 면 모두에서 마테오 형제에게 가치 있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보다 더욱 고귀한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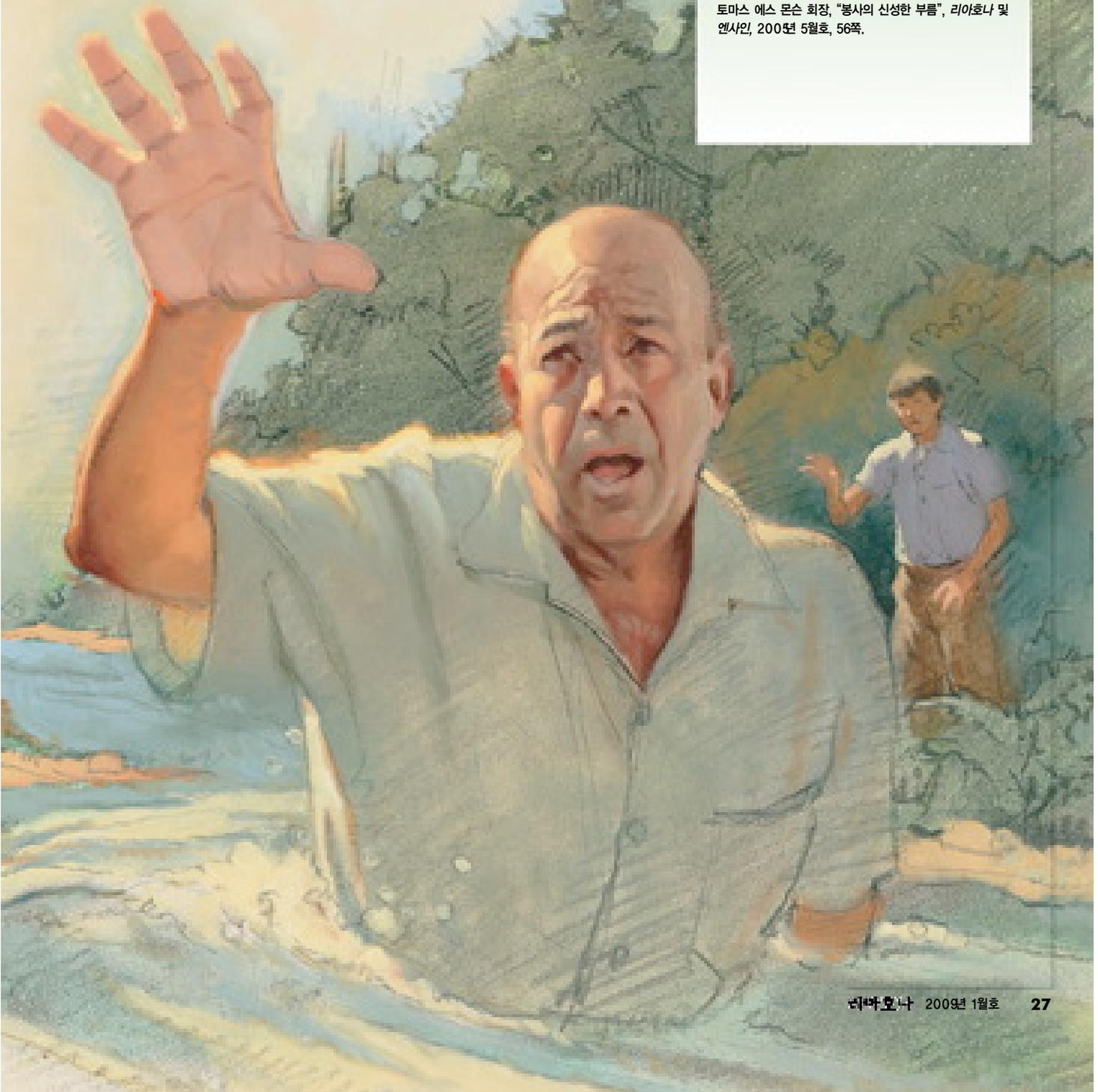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음

“이 일이
여러분이나 저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며, 주님의 심부름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봉사의 신성한 부름”, 리아호나 및
엔사인, 2009년 5월호, 56쪽.





조셉 스미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데니스 비 노인슈완더 장로
칠십인 정원회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교리와 성약 20:2)되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사도의 부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분이 오시리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부활의 절대적인 실재성에 대한 개인적인 증언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도로서의 증언은 그들의 가르침의 기초였습니다. “너희가 … 내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 1:8)는 말씀은 최초의 십이사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는 “천하 각국”(사도행전 2:5)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사도행전 2:32)라고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린도전서 15:8)고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부활의 실재성에 대한 분명한 증언은 사도가 하는 간증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구주의 구속 및 구원의 권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사도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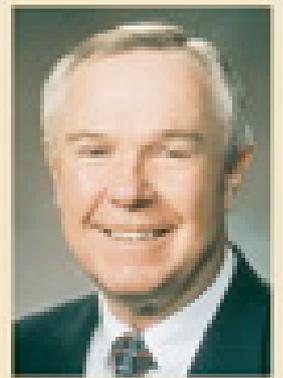
10:43)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이 한 쌍의 기둥 없이는 사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간증은 경험, 신성한 명령, 그리고 가르침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 사도들에게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사도행전 1:3)라고 기록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러한 사도의 요건에 얼마나 부합합니까? 대답은 “완전히”입니다.

첫번째 시현

조셉 스미스가 받은 사도로서의 교육은 182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종교에 관한 의문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실재성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구속 및 구원의 권능에 대한 증언으로 부름 받았습니



종

교에 관한

조셉의 의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살아 계신

신성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나타내심에 의해

응답되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나 그들의 교리들의 정확성에 관한 권위적인 결론에 대해 의견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거나 나타낼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스러운 나타내심 없이는, 어린 조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언쟁과 의견의 혼돈”(조셉 스미스-역사 1:10)에 한 가지 의견을 더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관한 조셉의 의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살아계신 신성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나타내심에 의해 응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번째 시현이라 불리는 경험입니다.

초기 사도들의 경험처럼, 조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의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셉의 시현은 처음에는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추가적인 경험과 가르침에 의해 빛이 더해지면서 그것은 회복의 기초를 놓는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실재성,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러한 나타내심이 조셉 스미스가 사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지는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치고자 한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년 조셉에게 온 첫 번째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전능하며 신성한 권능의 나타내심으로부터 왔습니다. 숲에서 기도했을 때 조셉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 및 구원의 권능에 대해 적어도 한 가지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캄캄한 어둠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고, 한동안은 [그가] 갑작스런 멸망을 당할 운명에 놓인 것만 같았”(조셉 스미스-역사 1:15)입니다. 조셉은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이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막 절망 속으로 가라앉아 멸망에 ... 금방이라도 내 자신을 포기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 나는 ...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원수에게서 풀려났음을 깨달았다.”(조셉 스미스-역사 1:16~17)

조셉 스미스가 사탄과 대면한 것은 그가 몇 년 후에 알게 된 모세의 경험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소년 조셉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보았으며, 그런 후에 사탄의 권력에 맞섰고 그의 세력에서 구함을 받았습니다.(모세서 1장 참조)

일이 일어난 이 순서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미 완전히 성숙한 시기에 있었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지식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모세가 사탄과 마주하기 전에 그분의 위대한 권능을 그에게 보이시으로써 모세가 자신의 삶에 대해 더 큰 이해력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후, 모세는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이 아무 것도 아님을 아나니, 이 일은 내가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도다.”(모세서 1:10)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모세가 뒤이어 받게 된 사탄의 유혹을 잘 견딜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반면,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생애에서 사탄의 힘과 그 힘이 가져오는 버거운 문제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미숙한 소년이었습니다. 사탄과 먼저 대면한 후 아버지와 아들의 나타내심을 통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구함을 받는 경험을 함으로써 조셉은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악의 힘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것은 항상 의의 출현 앞에서는 물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조셉이 사도가 되는 교육 과정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미래에 겪게 될 개인적인 시련들은 물론 교회를 설립하고 인도하면서 맞서게 될 압도적인 반대 때문에도

이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소년 조셉은 지혜를 구하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를 위한 사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첫번째 시험을 통해 그가 받은, 사도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가르침들 중에는 사도의 간증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의 실재성, 그리고 그분들의 권능에 관한 기초적인 첫 교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몬경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초기 사도 교육은 물몬경 번역과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물몬경은 조셉이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조셉 스미스-역사 1:34), 즉 교회를 조직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원리들을 알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구주에 관한 “명백하고 극히 귀한”(니파이전서 13:26) 선지자 및 사도의 간증들을 무수히 접하게 되었으며, 그 모든 간증들은 그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물몬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100개 이상의 주제를 다루었으며, 그 각각은 조셉이 구주의 신성한 역할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¹ 이러한 가르침 덕분에,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맡은 책임의 성스러운 목적에 대해 통찰력을 갖게 해 준 고대 선지자들에게 친밀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몬경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편성을 명백히 밝혀 줍니다. 구주의 거룩한 희생은 그분이 계셨던 시절의 성지의 경계로 국한되거나 초기 십이사도들이 방문했던 세계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속죄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포함합니다. “무한한 속죄”(니파이후서 9:7)에 대한 야곱의 가르침은 특별히 당시의 기독교의 가르침과 대조해 보았을 때 어린 조셉의 마음에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주었겠습니까?

또한 물몬경은 부활의 보편성과 그것에 관한 다른 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 교리에 관한 리하이, 야곱, 베냐민 왕, 아비아다아, 엘마, 엠올레크, 레이맨인 사무엘 및 모로나이의 설교는 모두 풍성한 가르침을 줍니다.

물몬경을 번역하는 동안,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구속 및 구원의 권능에 관하여 추가로 귀중한 개인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828년에 마틴 해리스는 조셉에게 물몬경 원고의 첫 116쪽을 빌려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마틴 해리스가 그

몰

본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간증을 담고 있으며 회복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원고를 잃어버렸을 때, 선지자는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² 조셉의 어머니인 루시 맥 스미스는 그가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고 기록했습니다. “오, 하나님! ...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낸 것은 바로 집니다. ... 제가 어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어떤 꾸짖음이라도 받아 마땅합니다.”³

주님은 조셉을 한 달이 훨씬 넘도록 이 끔찍한 자책감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⁴ 그런 후 위안과 사도에게 주는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조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으며, 허사가 될 수도 없느니라...”

“무릇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시를 받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행할 권능이 있다 할 지라도, 만일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며 자신의 뜻과 육신에 속한 욕망의 지시를 좇으면, 그는 반드시 타락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양갈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3:1, 4).

이 말씀은 조셉 스미스가 겪고 있었던 것을 주의 깊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사도라는 부름의



엄격한 본질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도는 누구에게 충실해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조셉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며, 그의 말씀을 경멸할지라도-그래도 너는 충실했어야 하였나니”(교리와 성약 3:7~8)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한동안 판들을 접할 권한을 잃었으며,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후, 그는 판들을 돌려받았고, 번역가로서의 직분도 회복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의 번역을 통해 받은 교훈들은 그가 사도라는 부름 안에서 성장하는 데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몰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⁵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간증을 담고 있으며 회복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계시와 경전

1829년에 몰몬경 번역을 마치고 1830년에 교회를 조직한 후, 조셉 스미스는 다른 경전을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사도 교육을 계속 받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3년간의 성경 번역과, 1835년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서 번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성경 번역은 구약의 선지자들 및 신약의 사도들의 역할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이해를 넓혀 주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추가적인 계시, 즉 모세서를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세서는 선지자에게 창조에서의 구주의 역할을 비롯하여 그분의 성역에 관한 중요한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나는 시작과 끝이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니.”(모세서 2:1) 계속해서 주님은 “그리고 무수한 세상을 내가 창조하였고 ...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창조하였나니, 이는 나의 독생자니라.”(모세서 1:3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서는 전세에서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를 밝혀 주었고 위대한 의의 권능에 대한 선지자의 이해를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이 계시에서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모든 사도의 교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던 가혹하고,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적인 모습의 하나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모세서는 무한한 동정심을 지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예복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이 ... [우시는 것]”(모세서 7:28)을 보았습니다. 예복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알고자 했기에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내가 ... 계명 ... 주기를, 서로 사랑하라 하고,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택하라 하였[느니라] ... 그런즉 이들이 고통을 겪을 것을 보면서 하늘들이 어찌 울지 아니하리요?”(모세서 7:33, 37; 또한 신명기 6:5; 레위기 19:18; 마태복음 22:37~39 참조)

또한 선지자는 모세서의 번역을 통해 구주의 구속 및 구원의 권능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구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줄]”(모세서 1:39) 목적으로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모세서 1:32) 창조되었습니다. 구주께서 도마와 십이사도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라고 가르치시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이 절정의 시기에 올 나의 독생자의 피를 통하여 만민에게 주는 구원의 계획이니라.”(모세서 6:62)라고 밝히셨습니다.

숲속에서의 첫번째 시현, 몰몬경의 번역, 성경의 개정, 모세서의 계시, 그리고 아브라함서의 번역은 교회의 기초적인 토대를 놓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지식과 간증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에게 주어져서 교리와 성약으로 편찬된 계시들은 구주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전 안내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수많은 주제와 전후 참조 성구를 찾아보고 연구하더라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구주에 관하여 세상에 가져다 준 정보의 방대함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교리와 성약 93:21)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만일 [제가]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저]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으]”(교리와 성약 19:16)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지자가 계시해 준 것에 대한 나의 간증

구주의 성역에 관하여 제가 감사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을 깊이 감동시킵니다. 저는 말라기의 약속, 모로나이가 처음으로 조셉을 방문한 이야기, 니파이인들에게 주신 구주의 말씀, 그리고 엘리야의 커틀랜드 성전 방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더 나은 날을 위해 살았고 사랑했고

봉사했고 소망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거나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도 구주의 속죄가
적용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계시에 대해 저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배웁니다. 저는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것보다 더 공의로운 교리나 더
큰 희망을 주는 가르침을 알지 못합니다. 더 나은
날을 위해 살았고, 사랑했고, 봉사했으며,
소망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거나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도 구주의 속죄가 적용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계시에 대해 저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른 것을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저는 이 지식 하나만으로도 복음으로
개종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게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한 궁극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줄 데 없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능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까?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악을 이겨내는 의의
권능에 관하여 배운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장면을 암시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내게 관한 바, 나를 소유하신 이 곧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여 다 이루었나니-이를
행하였음은 만물을 내게 복종하게 하려 함이요

“모든 권능을 지녔으니, 세상의 끝과 ... 심판의
마지막 큰 날에 사탄과 그의 일을 멸할 것인
바”(교리와 성약 19:2~3)

구주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과 가르침에 의해 발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⁶라고 가르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실재성과 부활에 대해
조셉 스미스가 지닌 사도로서의 간증은 구주의
구속 및 구원의 권능에 대한 그의 지식과 함께
선지자 자신의 아름답고 강력하며 간결한 증언을
통해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 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교리와 성약 76:22~24)

저는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부름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

칠십인에게 전한 말씀에서 발췌함

주

1. *Book of Mormon Reference Companion*, Dennis L. Largey 편집 (2008), 457~458쪽 참조.
2. Lucy Mack Smith, *History of Joseph Smith*, Preston Nibley 편집(1958), 128~129쪽 참조.
3. *History of Joseph Smith*, 128, 129쪽.
4. 116쪽은 1828년 6월에 분실되었다. 7월에 조셉 스미스는 지금의 교리와 성약 3편을 받았다. 9월에 선지자는 판들을 돌려 받았다. 교리와 성약 3편 및 10편에 대한 역사 소개 부분 참조.
5. *History of the Church*, 4:461.
6. *History of the Church*, 3:30.

어린 선교사

라우카우 모코피시

그 날은 내 단짝 친구의 열세 번째 생일이었다. 나는 등교하기 전에 그녀에게 줄 선물을 서둘러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몰몬경을 보았다. 나는 친구에게 그 책을 선물해 보기로 결심했다. 마음속으로 좋은 느낌이 들었지만 조금은 두려웠다. 이전에 누구에게도 몰몬경을 줬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그것을 받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녀를 찾았고 그녀에게 주고 싶은 특별한 책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책을 집어 들고는 앞쪽에 있는 우리 가족의 사진을 보았다. 나는 그 책이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이유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는 몰몬경이라고 말해 주었다. 또한 더 좋은 선물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도 말했다.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감동시켰고 나는 거의 울 뻔했다. 나는 벌써 선교사가 된 것 같았다! 내 친구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빨리 자라서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 ■

좋아하는 찬송가를 찾음

마이클 폴 인양

가 나 아크라 선교부의 우리 선교부 회장님은 선교사들에게 “계속 집중할 것”을 권고하셨다. 그분은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유명했다. 지역 대회 중 한 모임에서 그분은 우리가 계속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셨는데, 그 방법들 중 핵심은 좋아하는 찬송가를 갖는 것이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아하는 찬송가를 고르고 그것을 외워서 유혹을 받거나 우울해질 때 부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온종일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집이 그리웠다. 그 즈음, 가족 중 누구도 내게 편지를 보내오지 않아 나는 우울했다. 나의 집중력은 떨어져 있었다. 그때가 바로 나의 영을 복돋기 위해 찬송가를 택해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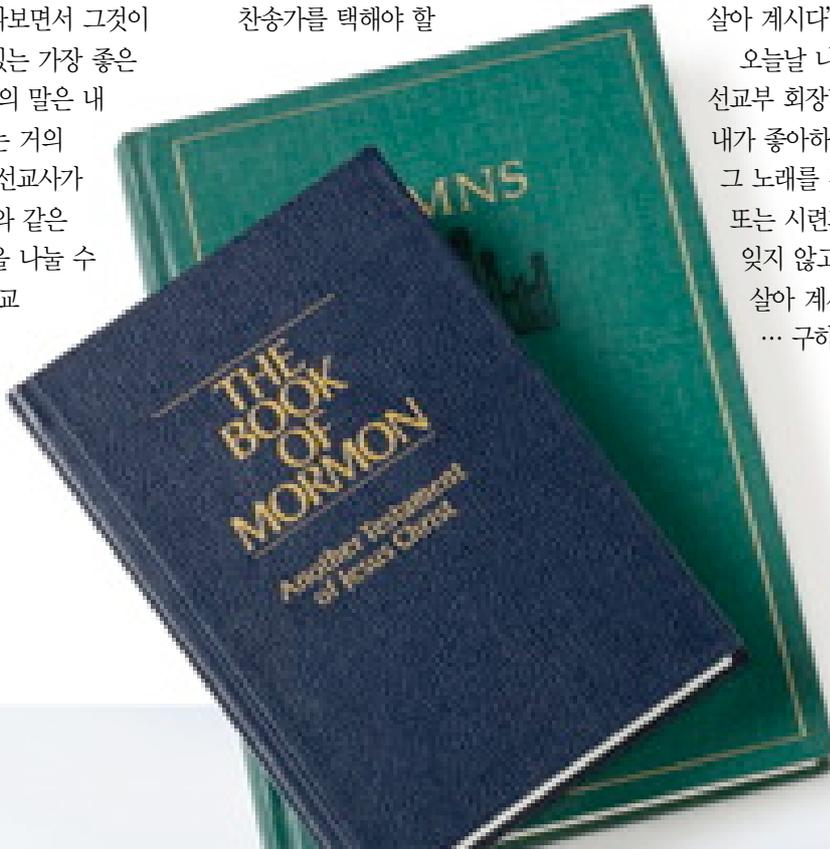
순간이었다. 나는 우리의 녹색 찬송가 책에 있는 많은 찬송가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무엇일까?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찬송가 책을 집어 들었고 내게 위안을 주는 찬송가를 찾으려고 귀퉁이가 다 닳은 페이지들을 뒤적거렸다. 그 즉시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 서 지역 회장이었던 칠십인 정원회의 셸던 에프 차일드 장로님이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우리를 방문하셨고 속죄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끝맺으셨다. “만약 모든 젊은 선교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한다면 선교사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필요한 찬송가였다. 나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내게 속죄에 관한 찬송가가 있다면 나는 내 구주의 사랑을 느끼고 위로받을 것이며, 그분이 내게 바라시는 일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다.

나는 결국 찬송가 68장, “내 구주 살아 계시다”를 골랐다.

오늘날 나는 현명한 권고를 주신 선교부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외웠다. 난 항상 그 노래를 깊이 생각하며, 우울하거나 또는 시련과 역경의 시기에 처했을 때 잊지 않고 그것을 부른다. “내 구주 살아 계시다. 큰 은혜 주는 이 말씀 ... 구하면 축복 주시네.” ■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디모데전서 4:12)

믿는 자의 본

본부 청남 청년 회장단

한 의로운 청년 또는 청년의
영향력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습니다 임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신뢰하셔서 여러분이 침례 때 그분의
이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훌륭한 인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교회와 여러분의 가족을
대표할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을 그분에게로
데려오고, 기적을 행하며, 그분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도울 사람,
즉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2009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어린 친구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은 오늘날의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이 시대에
태어난, 특별히 선택 받은 영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책임”이 있는 운명의 세대 중

일부입니다.¹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과
의로운 모범의 힘을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지력을 알고 있었으며, 우리는
여러분의 지력을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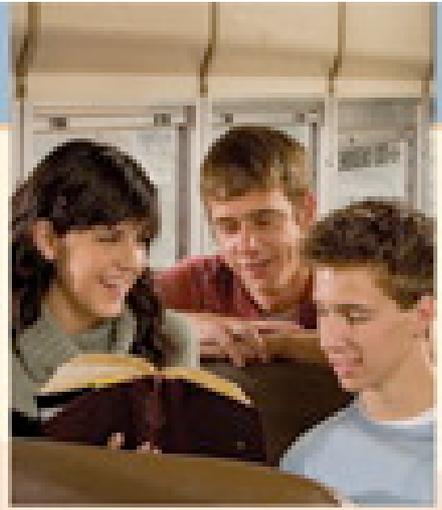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훌륭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 여러분의 행동 규범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는
‘내 생각은 어떻게?’ 라는 질문이 더
강조되게 하십시오.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확인을 받을 때
권능을 지닌 사람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신을 받으라’ 고 말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증거하는 특별한
음성의 울림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여십시오.”²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점점 커져 가는 개인적인 간증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간증의 위대한 축복을

인식하며, 자신들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합니다. 말과
모범을 통해 여러분은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앙을 확고히 심게
되면 ... 간증이 여러분의 전 생애 동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떤 사람과 교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줄 것입니다.”³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주의를
빼앗아가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수많은
목소리의 공세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매주
성찬을 취하고 “항상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교리와 성약
20:7)겠다는 여러분의 성약을 새롭게 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청녀들에게 주는 권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아들의 거룩한 이름을 기꺼이 받들겠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성약을 지키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성약을 새롭게 하고 지킬 때 성신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일러](니파이후서 32:3) 주실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들 역시 여러분을 강화시키고 여러분이 모범으로서 굳건히 서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 표준대로 생활할 때, 여러분은 성신의 인도와 지속적인 동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위는 세상의 것과 다를 것이며 여러분의 모범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믿 는 자의 본”이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믿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억하려면 매일 같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는 데 도움이 될 다음 세 가지 것들을 매일 해보기를 권합니다. 청녀 회장단인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100퍼센트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첫째, 매일 기도한다.

둘째, 매일 적어도 5분 동안 몰몬경을 읽는다.

셋째, 매일 미소 짓는다.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면에서 구별되고 다르게 보이는 만큼”¹ 세상의 선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끌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침 받아 왔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같은 수많은 청녀들이 매일같이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의 많은 영속적인 성공들이 오랜 세월 작은 일들을 꾸준히 행하는



메리 앤 쿡, 제1보좌(왼쪽); 일레인 에스 돌튼, 회장(중앙); 앤 엠 딘, 제2보좌.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은 작고 단순하지만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앨마서 37:6)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가운데 그 속에 담긴 축복들을 찾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만일 어느 날 잊어버리고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날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몰몬경을 읽고, 미소 짓는다면, 여러분은 그와 같은 노력에 따른 축복을 받아 믿는 자의 본, 즉 세상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청녀가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주

1. 스펜서 더블류 킴블, “The Role of Righteous Women (의로운 여성들의 역할),” *엔사인*, 1979년 11월호, 10 쪽.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⁴ 또한 여러분도 행복해질 것이며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여러분이 발하는 빛과 행복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문습니다. “복음대로 생활하고 믿는 자의 합당한 본이 되고자 노력하는 한 명의 청년 또는 청년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 대답이 분명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순결할 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00년), 2~3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모범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및 *Ensign* 200년 5월호, 113쪽.
3. *리아호나* 및 *Ensign* 200년 5월호, 114쪽.
4.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쪽.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년들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와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디모데전서 4:14) 바울은 이 구절에서 신권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그것은 신권을 통해 흘러나오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순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즉 매일같이 기도하고 경전 읽고,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십일조를 내고, 가능하다면 성전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는

것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그것은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신권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권 임무를 이행하거나, 개인 및 정원회 봉사를 하거나,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보여주는 친절한 말, 미소, 칭찬 한 마디, 그리고 등을 두드려 주는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것은 신권과 그 의무에 관해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권에 관한 성구들, 특히 엘마서 13장과 교리와 성약 13, 20, 84, 107, 121편을 읽고 상고하십시오. 가장 최근에 열린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에서 주어진 말씀들을 읽고 “신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배운



딘 알 버게스, 제1보좌(왼쪽);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회장(중앙); 마이클 에이 나이더, 제2보좌.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신권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할 때, 전임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하기 위한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될 것이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봉사와 모범이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디모데전서 4:12

올해 상호 향상 모임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상대적으로 어린 그의 나이가 복음대로 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력한 영적 경험을 한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음의 참조 성구들을 찾아 그 중 몇 사람에게 관해 읽어 본다. 사무엘상 17:12~40(잇), 니파이후서 2:4(야곱), 몰몬서 1:15(몰몬), 조셉 스미스-역사 1:7~2(조셉 스미스).

인생의 이 시기에 복음에 대한 헌신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일지에 적어 본다.

말

말(야고보서 3:2 참조)을 다스린다면 큰 자제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말로 다른 사람들을 헐뜯기보다는 복돋아 주어야 한다. (에베소서 4:29; 교리와 성약 108:7 참조) 이처럼 말을 다스리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들을 적고 실천한다. 칭찬을 한다, 가족들에게 더 친절하게 말한다, 좀 더 유쾌한 말투와 표현을 쓴다. 저속하고 불쾌한 욕설과 같은 말을 피한다.

대화

대화란 그리스어로 행위 또는 행동을 의미한다.

11 나는 거짓말을 행하고 거짓말을
12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에
앞서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 내가 너를 세까지 믿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권명하여
14 네 속에 있는 온갖 불경한 것까지 모두



모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천재지변과 같은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본보기, 즉 모범이
되어 달라는 특별한 부탁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는 도처에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들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한
기회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취하는 행동에서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도행전 10:38) 주님은 바로
행동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믿는 자의 본”, 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98쪽.

신앙

신앙의 모범이 되고자 한다면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야고보서 2:18)

자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애의 씨앗,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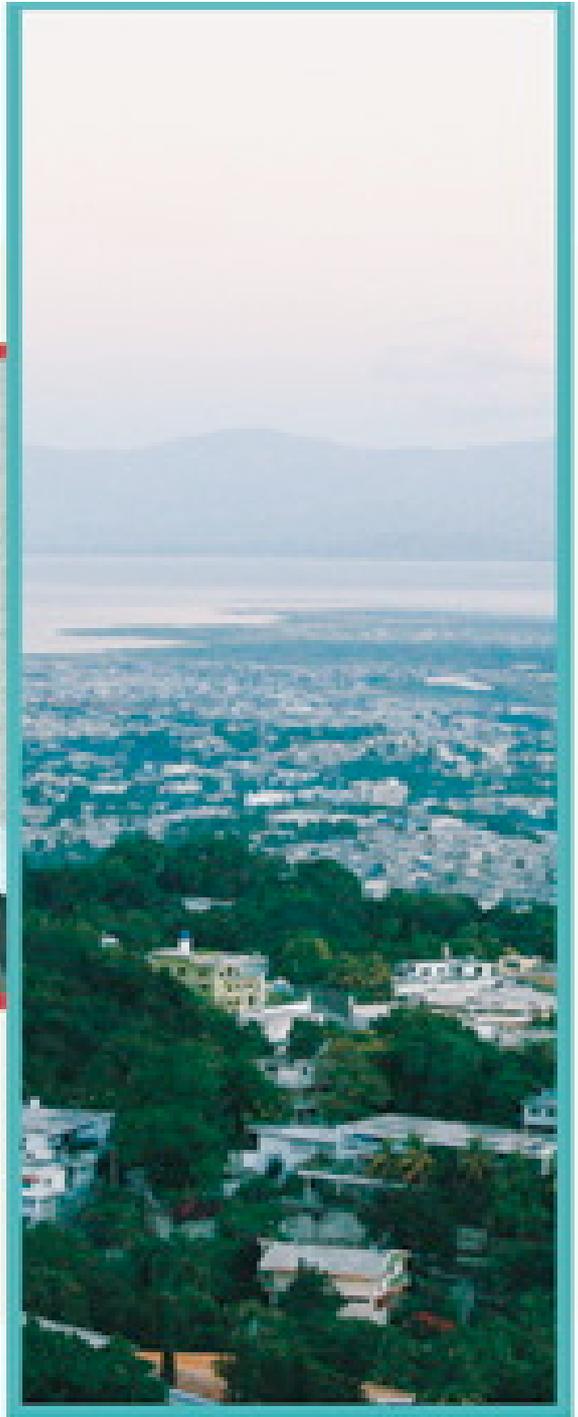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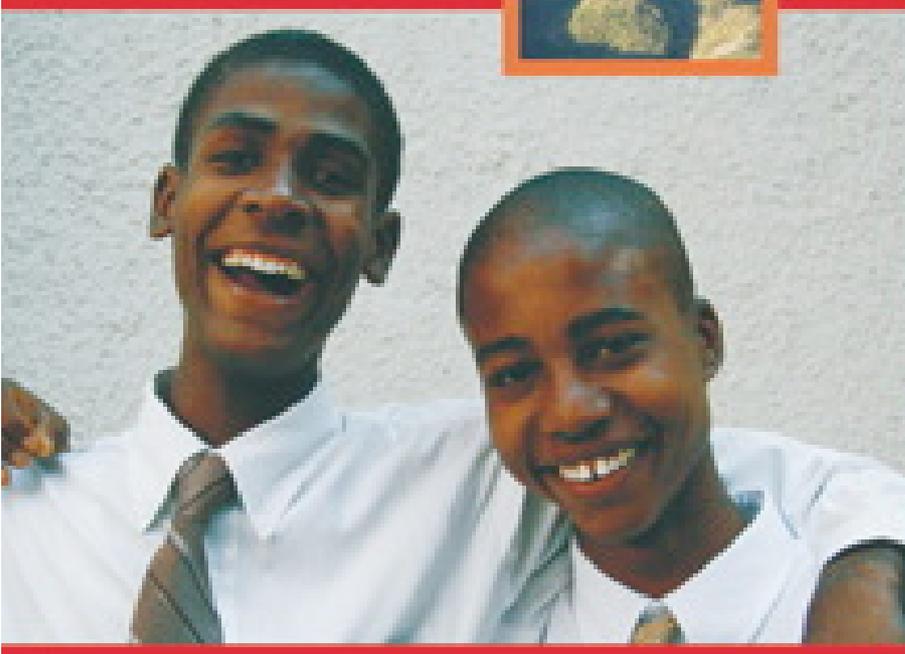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그분은 자애에 관하여
완전한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의 전 생애, 특히
속죄의 희생은 자애를 가르칩니다. 그분의 모든 행위는 온
인류와 우리 각자에 대한 절대적이고 명백한 사랑을 반영합니다.
그분의 모범은, 자애란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선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저는 승영과 영생을 향한 우리의 진보는 우리가
자애의 원리를 얼마나 잘 배우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소생의 씨앗”,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8쪽.

순결

찬송가 “거룩함도 더욱”(찬송가, 60장)의 가사를 읽고 순결의
모범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고해 본다.



아이티의 희망

이 섬나라에는 선교사의 영이 활기차게 용솨음치고 있으며, 자라나는 세대도 그러한 영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로 굳게 결심했다.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편집자 주: 정치적 불안정함으로 인해 타국에서 온 모든 선교사들은 2005년 아이티로부터 철수했다. 현재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선교부에는 자국 출신의 선교사들로만 67명이 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교회는 번성하고 있다.

18세의 다이우베우트 데모스테네와 19세의 로벤슨 마셀 라로퀘진은 가장 절친한 친구 사이이다. 그들은 돈독한 우정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지키고자 한다.

“우리는 이웃에 살고 있었고, 같이 농구도 했습니다.”라고 로벤슨은 설명한다. “저는 열여섯 살에 교회에 가입했고, 얼마 후에 다이우베우트에게도 교회에 오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기도를 드렸고 물려서지 않았습니니다. 보세요, 이제 그는 든직한 교회 회원입니다. 저는 제 친구가 자랑스러워요.”

“로벤슨이 제게 수없이 권유했죠.”라고 다이우베우트는 말한다. “결국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항상 멋진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로벤슨의 권유가 성가시지 않았어요. 사실 그건 너무나 놀랄 만한 것이었어요. 얼마 후 저는 선교사들과 토론을 시작했고, 열일곱 살이 되던 해에 교회에 들어 왔어요.”

이상

친구가 친구에게 복음을 나누고 선교사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선교 방법이다. “교회의 일원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둘이 되었고, 계속해서 함께 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로벤슨은 말한다. 그들이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 다이우베우트의 형 중 한 명과 또 다른 친구 한 명도 교회에 가입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었다.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북 스테이크, 센트랄레 와드의 회원인 로벤슨과 다이우베우트는 2005년 정치 혼란으로 인해 다른 나라 출신의 선교사들이 철수한 이후, 아이티에서 선교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선교부는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했고 그것을 달성했다. 오늘날 아이티에는 아이티 사람들만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십대들은 나이가 차면 선교사로 나가 봉사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들은 전임 선교사로 부름 받기 전에 이미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아이티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그곳 회원들이 아이티 사람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센트랄레 와드의 또 다른 회원인 18세의 청년

복음이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로벤슨 진, 다이우베우트 데모스테네, 니탈리에 라구에레, 파라 진 뱃티스테와 같은 후기 성도 청소년들이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땅이 헌납된 포르토프랭스의 언덕 꼭대기로부터 온 나라 전체에 이르기까지 아이티 후기 성도들이 미소를 나누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맨 위: 선교부 회장과 그의 부인이 선교부 사무실에서 봉사하는 장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파이레나우** 회장은 후기 성도 청소년들에게 바로 지금 복음 나누기를 시작하라고 권한다.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위:**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북 스테이크의 프란실론 회장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교회가 여러 면에서 청소년들을 축복한다고 말한다.

파라 진 뱀티스테가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교회의 미래를 짊어줘야 할 책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실질적인 동기입니다.”

“아이티에 있는 교회 청년 청년들은 구주를 따르고자 하는 의욕에 차 있어요.”라고 파라와 같은 와드의 친구인 17세의 나탈리에 라구에레가 말한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의 사업이 진척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아이티 선교사들이 아이티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을 볼 때 몹시 기뻐요. 아이티 선교사들은 열정적이고 행복에 찬 사람들이예요. 선교 사업을 마치고 나면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경험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해 줘요. 그런 후에 우리에게 같은 경험을 할 것을 권유하며 당장 오늘부터 친구들과 복음을 나눔으로써 시작하라고 권고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청남들처럼 전임 선교사로 봉사해야 하는 신권 의무가 없지만 “우리 역시 봉사를 하는 자들에게 많은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그러한 경험이 자신을 교화시켜요. 선교 사업은 인생을 살아가며 맞게 될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주고, 복음 안에 닿을 내려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선교 사업을 통해 자신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분의 증인이며,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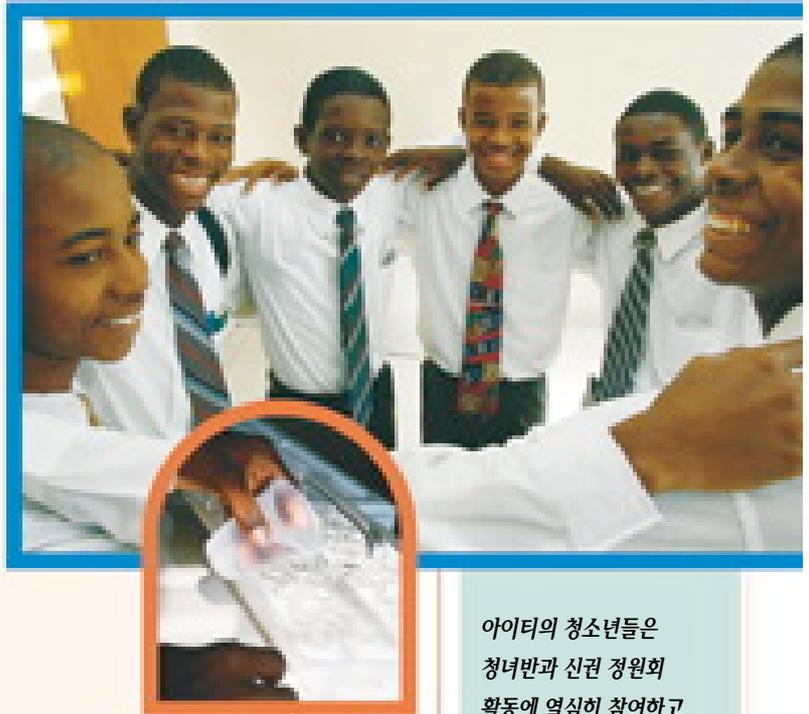
희망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많은 희망이 이곳 아이티에 있습니다.”라고 포르토프랭스 북 스테이크의 광말드 프란실론 회장은 말한다. “청소년들은 참으로 선교사로 봉사하려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학보다도 먼저 선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자연스러운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길에서 선교사들을 만난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사업을 하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학업을 뒤로 하고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아내가 귀환 선교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서 느끼게 되는 축복들에 주목했다. 선교사 봉사의 직접적인 결과로 더 강한 가족들과 더 강한 지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말을 이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15년 내지 20년 동안 아이티에서 선교사로 봉사한다면, 이 아이티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상상해 보십시오.” 회원들은 “선지자와 총관리 직원들로부터 과거에 이곳에서 봉사했던 다른 나라 출신의 귀환 선교사들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베풀어 주는 사랑과 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교 사업이 아이티인들에 의해 100 퍼센트 이뤄집니다. 선교부 회장조차도 약 10년 전에 아이티에서 봉사했던 귀환 선교사 포우차드 파이레나우 회장이 맡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미래

일부 사람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곳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현재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 제이 헨리 미켈은 말한다. “이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행복을 깨달아 감에 따라 아이티에서의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다이우베우트는 말한다. “저는 세계 복음을 나누어 준 로벤슨에게 참으로 감사해요.”라고 그는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지난 주에 저는, 기쁨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는가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원하는 물질적인 것들을 모두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항상 평안을 느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고픈 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미 선교사가 되는 것을 실제로 연습해 보고 있어요.”라고 로벤슨은 말한다. “저는 매일 배낭에 물문경을 몇 권 넣고 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교회 회원이며, 간증을 몹시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전임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분께 봉사할 훌륭한 기회가 될 거예요. 그것이 제 큰

소망입니다.”

다이우베우트는 종종 귀환 선교사들과 이야기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주님이 선교사들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저도 그러한 축복들을 받아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제게 선교 임지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는지를 말해 주었어요. 또한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도 그들은 합당하고, 훌륭한 모범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미래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이티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라고 다이우베우트는 말한다. “그분은 이곳 회원들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러한 기회는 아이티인들이 아이티인들을 가르침으로써 찾아왔고, 우리는 그로 인해 축복받을 거예요.”

로벤슨은 곧 선교사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아이티에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이우베우트 또한 얼마 있지 않아 그 뒤를 따를 것이다. 그 역시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봉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아이티든, 또 다른 나라로 부름을 받든,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우정이 계속될 것임을 안다. 복음 안에서 친구가 되면, 영원한 친구가 되기 때문이다. ■

아이티의 청소년들은
청녀반과 신권 정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침례 받을 때
맺은 성약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그
약속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네가 몰몬임을 결코 잊지 마라

힐도 로실로 플로레스

토 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유혹에 굴하거나 우리의 행위가 마땅히 해야 할 표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머니를 기억할 때 악에서 돌이키고 더 나은 본성을 따르게 됩니다.”¹

몬슨 회장의 말씀은 줄곧 내게 힘이 되어 왔다. 교회에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아 그분의 메시지를 처음 읽었을 때,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 여러 해 전에 어머니가 해주신

현명한 권고가 마음에 떠올랐다.

어머니는 다른 개신교회의 회원이셨지만, 내게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에게 친절하셨다. 내가 후기 성도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어머니는 전적으로 나를 지지해

나 는 교회에 그만 다니기로 결심했다. 일주일 후에 어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보시며 내가 언제나 기억하려고 애써 왔던 것을 말씀하셨다.

주셨다.

페루의 내 고향에서 열린 언론인의 날 축하 파티에 참석하기 전까지 교회 회원으로서의 새로운 나의 삶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가벼운 대화와 칭찬의 말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티 분위기가 흥겨웠다. 곧이어 사람들이 축배를

들었다. 파티가 무르익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은 유혹 또한 커졌다.

교회의 개종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취해야 하는 변화가 때로는 친구를 새로 사귀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계명을 어기고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도록 유혹하는 적대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료들이 맥주 한 잔을 권했을 때, 나는 그것을 받아 마셨다. 그리고는 계속 마셨다. 파티가 끝날 무렵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나는 전략하고 밀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조용히 들어가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교회에 그만 다니기로 결심했다.

일주일 후, 식탁에 앉아 점심 식사를 하는 도중에 어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들아, 네가 몰론임을 결코 잊지 마라.”

직장으로 출퇴근할 때 나는 자전거를 타고 교회 집회소를 지나갔다. 집회소를 지날 때마다 내 양심은 나를 괴롭혔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더 이상 죄책감을 안고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곧바로 나는 지부 회장님의 사무실 바로 앞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안으로 들어가서 접견을 요청했다.

나는 지부 회장님에게 내가 한 일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했다. 지부 회장님은 내 말을 들으신 후 권고의 말씀을 주셨다. 그 순간 이후로 나는 다시는 지혜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나는 어머니가 내게 결코 잊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언제나 기억하려고 노력해 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다. ■

주
1. “보라 네 어머니라”, 성도의 벗, 1998년 4월호, 2~4쪽.

우 리
아기들이
살게 될지
죽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 돌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분이 내가 짊어지는
 짐을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두 배의 축복

앤젤라 리

나의 인생은 남편과 함께 태아의 성별 및 발육 상태를 검사하러 병원에 갔다가 영원히 바뀌었다. 나는 쌍둥이를 가졌다는 말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쌍둥이가 출산 때까지 살아 있을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사의 말에 기쁨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로 바뀌었다. 의사는 임신 중절을

제언했다. 그대로 임신을 진행시키는 것은 위험하며 어느 시점에 이르러 반드시 입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나는 어떻게 남편과 세 아이들을 남겨 두고 장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지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우리 아기들이 조산으로 인해 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나를 무척 힘들게 했다.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신권 축복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우리 가족은 괜찮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구주의 사랑을 느끼며 기쁘나 슬프나 그분이 함께 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병원에 무기한 입원을 했다. 아기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아기들의 심장 박동수를 끊임없이 관찰했다. 아기들의 심장 박동수가 떨어질 때면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고, 출산 예정일인 34주까지 아기들이 살아있어 줄지 의문이 들었다. 25주 반이 지난 시점에 한 아기의 심장 박동이 거의 멎을 만큼 치명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다. 의사들은 아기의 심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하지 않으면 수분 내에 긴급 제왕 절개 수술을 하여 아기들을 꺼내기로 결정했다. 간호사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수술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생아 전담팀이 대기하고 있음을 통보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몹시 두려웠다.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나는 마음 속으로 아기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쌍둥이가 자궁 속에서 충분히 자랄 때까지의 시간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또한 위안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다시 한 번 신권 축복을 받았을 때처럼 평안을 느꼈다. 우리 아기들이 살게 될지 죽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 돌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분이 내가 짊어지는 짐을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에는 아기의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더 이상 수술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 후에도 병원 입원은 두 달간 계속되었고, 아기들의 심장 박동수가 오르내리는 탓에 염려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어느 아기의 심장 박동수도 이전만큼 낮게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 33주가 되었을 때 우리의 아들 존과 제이콥이 태어났다. 그들의 탯줄이 서로 8번이나 꼬여 있었고, 심장 박동이 아주 낮게 떨어졌던 아들인 존의 경우, 탯줄이 목에 두 차례나 감겨 있었다. 우리 쌍둥이는 체온 및 호흡 조절을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남아 치료를 받았다. 조산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존과 제이콥은 불과 19일만에 집으로 올 수 있었다.

우리 쌍둥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고, 조산에 따른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도

없다. 시련으로 시작된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의 하나가 된 것에 감사한다. 건강한 두 아들이 주어졌고 신권 축복과 기도의 힘에 대한 나의 간증이 강화되었다. 주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사랑과 평안을 돌이켜 기억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한다. 그때 나는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시련을 견뎌낼 힘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배웠다. ■

과거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마르크스 에이 워커

나 같은 외판원들에게 긍정적이고 행복한 태도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그런데도 수년 전에 나는 너무 낙심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의욕이 나질 않았다. 어느 날 오후에 특히 더 그랬다.

내 얼굴에 참담한 기색이 역력했던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 왔던 동료 한 명이 나의 근황이 어떤지 물어왔다. 결혼 6년 만에 아내와 이혼했는데, 이번 달이면 결혼 기간과 똑같은 이혼 6년째가 된다고 털어 놓았다. 내 마음은 온통 번민에 휩싸여 있었고, 내 영혼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나는 성장해 가는 자녀들의 모습들을 많이 놓치고 있었고, 그러한 자각이 나를 계속 괴롭혔다. 나는 외로움에 지쳤고 앞날에 대한 어떠한 답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동료에게 이 모든 것이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치러야 했던 값이라고 말했다.

다른 개신교회의 회원이던 그 동료가





응답했다. “값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거야?”하고 물었다. “네가 진실되게 네 죄를 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어. 넌 그분이 왜 지상에 오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니?”

나는 그의 대답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날 오후 내내 그가 한 말이 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그랬다. 비록 내 잘못으로 인해 그에 따른 결과를 고스란히 받으며 생활해 왔지만, 그 값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르셨다. 왜 이 사실을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나는 그 교리를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속죄의 힘이 내 삶에도 미친다고 인식하자 마음에 평안과 위안이 깃들었고, 지금까지도

내 영혼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나는 동료에게 이 모든 것이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치러야 했던 값이라고 말했다.

삶 속에 지속적으로 남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가운데 많은 결과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외로움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내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잘못으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나는 그 느낌을 간직하고 있다.

직장에서 이 경험을 하고 여러 해가 흘렀다. 나는 우리 행위에 따른 결과들 중 일부가 우리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날 오후 내 마음을 짓누르던 느낌과는 대조적으로 지금은 마음에 평안과 희망을 갖고 산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셨음을 알고 있으며,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분은 이 시련의 세월 동안 나를 지탱해 주셨다. 비록 지금도 시련이 계속되고 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로 향하며,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께서 나를 지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음 제언들은 가정에서만뿐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반원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에 관한 연구를 향상시킴”, 10쪽: 우리가 주일 학교에 갈 때 미리 배우고 참여할 준비를 하고 갈 수 있게 해 주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자녀들 중 나이가 좀 더 많은 자녀들과 토론한다. 올해, 좀 더 잘 준비된 상태로 주일 학교에 가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권유하거나, 가족이 모두 함께 노력할 가족 목표를 세운다. 나이가 더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목표, 가령 공과반에 자신들의 경전을 가지고 가거나, 시간에 늦지 않게 주일 학교에 참석하거나, 교사를 위해 기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 참여하는 일 등과 같은 목표를 세우도록 돕는다.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토론한다.
“믿는 자의 본”, 36쪽: 가족 모두에게 다른 사람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면 적어 보게 한다. 열거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가족 각자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토론한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목표를 세운다.
“재능 발표회”, 118쪽: 이 기사를 읽고 마리는 자신이 가진 어떤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한다. 가족 모두가 자신의 숨은 달란트들을 발견할 수 있게 각자 자기 왼쪽에 있는 사람의 달란트를 묘사하게 한다. 시간이 허락되면 돌아가며 몇 차례 더 하도록 한다. 모로나이서 7장 4 7절과 이 기사 측면에 나와 있는 엘 톰 페리 장로님의 인용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벤의 일주일”, 114쪽: 이 기사를 읽으며 벤이 할아버지에게 일요일에 쇼핑하러 가지 말자고 부탁할 때

이번 호의 주제들

페이지 수는 기사의 첫 번째 페이지를 뜻합니다.

친 = 친구들	소망, 40, 112쪽
가르침, 10쪽	속죄, 28, 35, 46쪽
가정의 밤, 48, 110쪽	신앙, 14, 18, 25, 26, 39, 45, 112쪽
간증, 2, 8, 18, 22, 28, 36쪽	아론 신권, 38쪽
경전, 10, 22, 28, 39, 114쪽	안식일, 114쪽
교리와 성약, 10쪽	예수 그리스도, 46, 112쪽
교육, 22쪽	유혹, 44쪽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 112쪽	재능, 118쪽
기도, 8, 10, 14, 45쪽	조셉 스미스, 10, 14, 28, 116쪽
모범, 2, 8, 36, 39, 40, 112, 110, 114쪽	종교 교육원, 18쪽
물문경, 22, 28, 35, 116쪽	주일 학교, 10쪽
방문 교육, 25쪽	찬송가, 35쪽
사도, 28쪽	초등학교, 114, 118쪽
사랑, 2, 114, 118쪽	축복, 17, 18, 26, 45쪽
선교 사업, 2, 35, 40쪽	회개, 46쪽
	희생, 26쪽

필요했던 용기에 주목한다. 가족 개개인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는지 토론한다.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하는 몇 가지 상황을 역할극으로 해 본다.

우리 가족의 가정의 밤을 바꾸어 놓은 공과

우리에게는 다섯 살, 세 살, 한 살 난 어린 자녀들이 있다. 처음에는 가정의 밤이 엉망이었다. 아이들은 온통 정신을 딴 데 팔았다. 아내와 나는 거의 포기할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밤, 내내 레이먼인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대해 가르치며 두꺼운 책을 읽힌 판에다 그림 붙이기를 했다. 우리는 차례대로 돌아가며 이야기에 등장 인물이 나올 때마다 해당 그림을 찾아 판에 붙여

나갔다. 아이들은 그 활동을 정말 좋아했고 우리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고 영이 충만한 가정의 밤을 할 수 있었다. 그 날의 공과는 우리의 가정의 밤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아이들의 참여를 더 많이 이끌어 낼 수 있게 공과 준비를 했고, 아이들은 좋은 가정의 밤이 되도록 모든 일에 자발적으로 임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을 좀 더 내어 가정의 밤을 계획했다. 가정의 밤이 각기 다르게 짜여지도록 계획했다. 다채로운 활동들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정의 밤에 찾아오고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아내와 나는 꼼꼼하고 세심한 계획을 통해 노력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나서서 가정의 밤을 하고 싶어하며 가정의 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프랜시스 오와 아다 유 메리브 부부, 나이지리아, 아버지

여러분의 즐거운 가정의 밤

여러분이 경험한 즐거운 가정의 밤 사연이 있다면 liahona@ldschurch.org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